

碩 士 學 位 論 文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도덕과
학습지도 방안

-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

指導教授 梁 邦 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金 善 熙

2000年 8月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도덕과
학습지도 방안

-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

指導教授 梁 邦 柱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4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金 善 熙

金善熙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0年 7 月 日

審査 委員長 _____ 印

審査 委員 _____ 印

審査 委員 _____ 印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도덕과 학습지도 방안

-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

金 善 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指導教授 梁 邦 柱

본 연구는 제주 전래동화를 도덕 교육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그 의의를 밝히고, 초등학교 도덕과 학습지도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그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구안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현행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은 아동들의 도덕성 함양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현행 교과서의 내용과 조직이 아동들의 도덕적 사고를 증진할 수 있는 논의거리로서 부적합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사용하는데 결핍되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주 전래동화의 활용은 매우 바람직하다. 제주 전래동화는 아동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간접 경험하게 하고, 합리적인 도덕적 근원을 발견할 수 있게 함으로서 아동들의 도덕성을 함양케 해 주는 훌륭한 교육자료이다. 제주 전래동화는 아동들에게 도덕적 통합성과 도덕적 사고능력 함양, 도덕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도덕교육적 기능이 있다.

특히 제주 전래동화의 주인공은 일상적인 평범한 인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자기 앞에 닥친 고난이나 불행에 좌절하지 않고 이들과 싸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행복을 얻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어서 아동들에게 좋은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

제주 전래동화의 도덕과 학습자료화를 위한 제주 전래동화 선정의 기준에는 지도의 용이성,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적합성, 교과 지도와의 관련성을 적용하였으며 그 절차는 교육과정의 분석, 제재별 지도 요소 추출, 제주 전래동화의 분석 과정을 거쳐 학습자료별 목록화하였다.

제주 전래동화 자료를 활용한 초등학교 도덕과 학습지도 방안 구안을 위하여 단계별 지도에 블룸(Bloom)의 교육목표 분류 5단계를 적용하여 제시하였으며,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도덕과 일반 학습과정안을 구안하였다.

제주 전래동화는 현재까지 채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중복된 내용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62편을 가려내고, 이를 도덕과 지도 요소에 근거하여 도덕적 행동을 중심으로 12편을 최종 선

* 이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정하여 교과 단원과 연계하여 목록화하였다.

도덕과 수업모형 중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수업이 가능한 모형은 가치 명료화 수업모형, 역할놀이 수업모형, 토론 수업모형으로 나타났으며, 가치갈등 수업모형, 집단탐구 수업모형, 개념분석 이론 모형들은 초등학교 4학년 단계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도덕과 학습의 실제에서 초등학교에서 흔히 적용되고 있는 학습모형인 토의학습과 역할놀이 학습을 중심으로 그 학습의 실제를 제시함에 있어서 토의 학습의 전개를 위한 적용 제제를 추출하여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토의 학습 지도 과정안과 역할놀이 학습지도 과정안을 구안하였다.

결국 제주 전래동화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가치판단 능력을 길러주고 제주 선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도덕과 교육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도덕과 수업에서의 제주 전래동화의 활용은 어린이들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目 次

<국문초록>

I. 서 론	1
II.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 전래동화	9
1.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원리와 문제점	9
2. 전래동화의 도덕교육적 의의	16
III. 제주 전래동화 학습자료의 개발	43
1. 제주 전래동화의 개관	43
2. 제주 전래동화의 학습자료	51
IV. 제주 전래동화 자료를 활용한 학습지도 방안	59
1. 도덕과 교수-학습에 의한 지도 방안	59
2. 초등학교 4학년 도덕과 학습지도의 실제	81
V. 결 론	89
<Abstract>	92
참고문헌	93
부록	9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산업의 발달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는 반면,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은 현 상황을 도덕적 혼돈의 시대로 이끌고 있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몰락은 세계적인 흐름인 것처럼 인식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 덩어리로 인식되어 어느 한 면만 해결해서는 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바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자는 정신보다는 물질을 중요시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보다 개인주의를 당연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도덕적 가치관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현상의 변화이다.

우리 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할 만큼 동아시아에서 유교를 중시해 왔다. 조선 500년 동안 유지해 온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전통적 가치관 역시 충과 효를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이 외래 문물의 유입과 더불어 계급주의가 무너지고, 나아가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대화되면서 자아가 확립되어 충, 효보다는 평등의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60-70년대의 갑작스런 산업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걸잡을 수 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둘째,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을 들 수 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과 사회가 중심이 되고, 그 사이에서 학교는 바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문맹을 깨우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다.

그러나 신분제가 철폐되고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짐으로써 기능교육, 지혜교육보다는 지식교육이 지상목표가 되고 있다. 오늘날의 학교교육이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학교에서는 바른 인간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가르치려 애쓰지만 사회가 그를 용납하지 않는다. 일류대학, 일류기업 등등 서열을 매김으로써 인간의 능력보다는 사회적 규준에 따른 잣대로 개개인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일류대학을 졸업해야 일류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의식이 사회적 통념이 되어 버려 교육의 본래 목표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류라는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경쟁을 하게 되고 이는 지혜보다는 지식을 중시하는 교육 풍토를 초래했다.

셋째, 가정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핵가족화의 현상은 개인주의, 가족중심주의적 생활을 강화시켰다. 대가족에서는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새로운 세대인 아동에게는 교육의 대상이었고, 교육 내용이었다. 아동들은 수평관계, 수직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몸으로 체득해왔다. 그러나 핵가족은 부모와 자식으로만 구성되어 가정 자체가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유아기부터 형성되어야 할 도덕의식이 공동체 문화 속에서 형성되지 않고 개별적이 되어, 이는 자연스럽게 이기주의로 흐르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학부모는 학교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학교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아닌 지식교육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어 문제를 야기한다. 부모 모두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은 심화되기도 한다.

넷째, 각종 해악을 끼치는 매스컴과 사회 여건을 들 수 있다.

TV 등 각종 매스컴과 각종 상업주의적 선전들이 아동들에게 물질만능의 쾌락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동들은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락물, 연예물, 상업 선전을 아무런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돈으로 쾌락이나 즐기려는 풍조에 휩싸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 학교에서는 인성 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도 상
실되어 가는 도덕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은 사회전체의 도덕적 수준의 문제이
며 이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교
육 현장에서는 도덕과의 수업에서는 교사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아동들
의 도덕적 태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생각해 버림으
로써 학부모나 교사들 및 사회구성원들은 아동들에 대한 도덕 교육의 책임
을 교사들에게 전가해 버리고 말았다. 물론 학교에서 교사는 아동들을 독
립된 하나의 개인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가르쳐 왔지만 지금껏 실시해 온
도덕과 교육이 기대할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덕 교육은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을 통하여 지도하거나 주변에서 쉽게 구
할 수 있는 예화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인 신념이나 태도를 가르쳐야 하는
데 교과서의 내용을 공부하는 데에만 열중해 왔던 것이다.

우리 속담에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는 바로 유
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아동들은 유아기를 거치며 말을 배
우고, 부모의 언동을 보면서 모방하며 옹고 그림을 판단하게 된다.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부모가 생산활동에 매진할 때 조부모는 손자를 가르치는 스
승 역할을 했다. 조부모들은 그들이 배웠던 대로 손자들을 가르쳤던 것이
다. 그들의 교재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다. 그 삶의 방식 속에서
지식과 지혜를 손자들에게 가르쳤다. 손자들은 그들의 조부모의 언행을 통
해 삶의 모델을 그려 나갔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되면서 그러한 모델은 부
모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그들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선조들에게서 배운 설화를 통한 교육이다.

대가족제도 하에서 설화는 아동들과 하루 종일 같이 살아가는 교재였다.
설화를 통하여 언어를 배우고, 설화 속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옹고 그림을
판단하였다. 그들의 어휘력, 발표력, 판단력 등등은 설화를 통해 얻어 들은
것이다. 이러한 아동용 대상으로 한 설화를 장르 분류상 전래동화라 하는

데 이는 아동들의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도덕성 함양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된다.¹⁾

전래동화는 교훈성과 흥미성을 지니며 설화 중에서 동심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문학적인 상상력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해 주며,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 또한 아동들이 재미를 느끼는 동안 전래동화가 갖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 선조들의 도덕적 사고 방식, 다양한 생활양식을 체득하게 한다. 그러므로 정서순화, 인격형성, 도덕적 사고능력 배양 등의 도덕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문화적 가치인식, 인격함양 등 많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

제주 전래동화는 전래동화의 명칭에 ‘제주’라는 낱말을 첨가한 것으로서 다른 지방의 동화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²⁾ 대부분의 동화가 그러하듯이 제주 전래동화도 어린이들에게 전승시켜도 좋은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따라서 제주 전래동화는 제주에서 전승되는 이야기 중 동심을 바탕으로 꾸며진 이야기, 즉 제주 선인들의 공동 참여에 의해서 같고 다듬어진 것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도덕적 성격과 함께 제주인의 가치와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전래동화를 도덕교육을 위하여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전래동화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형식이 덜 체계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신화, 전설, 민담을 아우르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에 국한한다는 제한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전래동화를 이용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그 실제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위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최윤식·김기창(1988),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p. 13

2) 박재형(1998), “제주 전래동화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

첫째, 도덕교육과 전래동화와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관련자료를 분석하며 초등교육과 전래동화의 의의를 새롭게 정리한다. 또한 도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도덕과 교육의 성격을 살피고, 나아가 현행 도덕과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제주 전래동화의 도덕 교육적의의의 탐색을 위해 문헌을 통해 일반적인 전래동화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고찰하며, 고찰된 내용을 토대로 제주 전래동화의 도덕교육적 의의를 탐색한다.

둘째, 수집된 제주 전래동화를 분석하여 자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 목적과 관련하여 자료 선정의 근거를 세우고 다음으로 이미 정리되어 활용되고 있는 제주 전래동화 등을 수집,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앞선 자료를 근거로 사용 목적에 따라 제주 전래 동화를 학습 자료화한다.

셋째, 제주 전래동화 자료를 이용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도덕과 교수학습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인 도덕과 교수-학습법을 검토하고 그 검토된 것을 토대로 제주 전래동화 자료를 투입할 실제 교수-학습 활동의 과정과 기법을 구안하고 다음으로는 실제 초등 4학년 도덕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도 방법을 개발한다.

전래동화에 대한 논의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그 성과도 크게 축적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 중에서 본 연구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만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전래동화를 대상으로 논의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제에 따른 가치관의 분류 문제, 전래동화 교육방법에 따른 문제, 인물에 따른 문제, 수용방법에 따른 문제 등 국어과에서 문학영역, 작문영역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가치관을 연구한 최희순³⁾은 전래동화 35편에

3) 최명희(1973), “한국 전래동화와 어린이 고전소설에 나타난 가치관의 분석”,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나타나는 가치관을 가족애, 권선징악, 인간애, 사회정의, 희망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상적 배경으로는 유교사상, 불교사상, 도교사상, 무속사상이 우리 전래동화에 깔려있는 주제들에 도덕적·교훈적인 사상이 많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전래동화 교육방법에 따른 집중적인 연구는 손동인과 최운식·김기창⁴⁾에 의해 이루어졌다. 손동인⁵⁾은 전래동화의 교육적 진단과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각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전래동화의 작중인물의 성격과 배경을 분석하고는 작중 인물의 성격이 어린이들의 가치관 정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좋은 전래동화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전래동화는 교육적 성격이 강하여 성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보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동화를 수록한 것은 그것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나아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외로 그 외 이경숙⁶⁾, 신정순⁷⁾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또한 인물에 따른 문제를 연구한 이성진⁸⁾은 전래동화에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꿈, 선과 미를 심어 주는 내용이 많다고 하였다. 특히 권선징악, 효, 경애와 동정심, 인내심, 의지력, 착실성, 정의감, 용감 등 다분히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수용방법에 관한 연구는 박재형⁹⁾, 이현숙¹⁰⁾, 현길언¹¹⁾등이 있으며, 그 중

4) 최운식·김기창(1988), 「전래동화 교육론」, 집문당
5) 손동인(1984), 「한국 전래동화 연구」, 정음문화사.
6) 이경숙(1991), “한국 전래동화의 가치와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 신정순(1992), “아동의 전래동화수용양상과그지도방안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 이성진(1986), “한국 전래동화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 박재형(1998), 앞의 글.
10) 이현숙(1996), “교육에 수용된 전래동화” 「최신 국어과 교육의 이론과 현장의 조명」, 서울: 한샘출판주식회사
11) 현길언(1980), “제주설화를 통해 본 제주도 정신고구”, 「논문집」 제12집, 제주대학교

인물에 대한 설화를 전래동화로 수용한 현길언은 전래동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적이나 기행을 통해 어린이들은 제주선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인물들의 삶을 통해 교훈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게 한다고 했다. 특히 설화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제주 전래동화를 연구한 박재형¹²⁾은 제주 설화가 제주 전래동화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용 양상을 밝히고 바람직한 전승방향을 제시하면서 제주 전래동화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가치 판단 능력과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고, 제주 선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상과 같이 전래동화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는데 대부분이 전래동화를 문학작품으로 다룬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전래동화의 도덕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한다. 나아가 제주 전래동화를 이용한 교육자료 개발과 그 활용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전래동화의 도덕 교육적 가치를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둘째, 수집된 제주 전래동화를 분석하여 자료화하고 제주 전래 동화 자료를 이용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도덕과 교수-학습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한국 전래동화와 제주 전래동화 연구에 관한 저서와 논문, 기존에 조사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전래동화의 특성과 관련한 연구 자료의 범위 문제이다. 전래동화는 체계화되지 않는 상태로 구전되어 오는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 다룰 수 없고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럴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에 의해 수집, 체계화되고 또 동화로서의 형식을 갖춘 것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교육현장에서 활용상의 문제이다.

12) 박재형(1998), 위의 글

도덕과 학습지도 방안 구안에서 4학년 도덕과만을 중심으로 구안한 이유는 4학년 사회교과의 사회과 탐구¹³⁾에 의하면 우리고장을 학습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회과의 지역단원과 연계한 고장의 전래동화 학습을 이 시기에 집중 지도하였을 때, 교육적 효과가 더욱 배가 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은 본 연구의 목적 달성에는 거리가 있고, 각 교육과정 영역별로 고려할 사항이다.



13) 제주도 교육청(1996), 「아름다운 제주도」,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II.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 전래동화

1.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원리와 문제점

1) 도덕과 교육의 원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는 서로간의 이익이 상충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익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이것의 조화로운 대처를 위해서 인간사회에 도덕이 존재하게 되었다.

‘道’란 인간이 사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땅히 가야할 길을 의미하고, ‘德’은 道를 따라 반복된 실천 결과로 얻어지는 인격의 품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德은 道의 계속성, 반복성에서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道는 ‘원리’를, 德은 ‘실천’을 뜻한다고 하겠다.¹⁴⁾

그러므로 道徳人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바로 알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道와 德은 저절로 알고, 터득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교육활동이 개입되어야 한다. 道(원리)를 알게 하고, 이를 德(실천)으로 연결시키려는 활동이 곧 ‘도덕 교육’이다. 道란 ‘도덕 규범’과 ‘도덕적 원리’를 포함한다. 도덕 규범이란 인간의 삶의 과정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바탕이 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도덕규범은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보편화된 도덕규칙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마땅히 가야할 길을 가려면 도덕규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도덕규범(덕목)을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복잡·다원해짐에 따라 덕목의 적용만으로

14) 유영춘(1973), 「도덕교육」, 현대교육총서출판, p. 70.

는 오늘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선택적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갈등하게 된다. 복잡한 가치들이 다양하게 서로 뒤엉켜 있어 도덕적 문제도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이제 도덕의 문제는 덕목의 ‘적용문제’가 아니라 덕목의 ‘선택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선택적 도덕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 교육내용을 내용중심의 도덕교육 내용보다는 다양한 삶의 갈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도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적 도덕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요구는 도덕과 수업에 있어서 방법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덕교육의 방법은 다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덕목을 숙지하고 실천하게 하는 도덕교육 이상의 어떤 교육 방법이 있어야만 우리 앞에 직면하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도덕규범의 숙지 이외에 ‘도덕적 원리’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도덕적 원리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다”라는 행위의 규칙을 말한다.¹⁵⁾ 그러나 도덕적 원리는 도덕 규범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도덕 규범 인식의 기초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덕목의 주입과 교화 같은 훈련이 아니라 전래동화 속 인물들의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서 인지적 요소-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지식-을 깨우치게 되며, 이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작용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덕적 신념과 행동을 형성하여¹⁶⁾ 실천으로까지 연결시켜 나아가는 도덕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도덕교육은 ‘도덕적 원리의 교육’을 통해 ‘德’에 이르게 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덕교육의 형태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도덕교육이다. 이 유형은 학생의 직접적인 ‘행동 통제’에 역

15) 이영춘(1992), “도덕과 교육의 당면과제”, 『한국교육논총』 제5집, p. 3.

16) 권혁내(1980), “도덕과 수업 분석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논문집』 제 20집, p. 20

점을 두고, 행동을 통한 규범 실천의 내면화를 꾀한다.¹⁷⁾

이러한 행동 통제적 접근 방식은 덕목 중심의 훈화식 형태의 교육과 습관화 교육이 중심 활동이 되고, 이에 따라 평가 방법 역시 행동관찰을 주로 하는 교육 방식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치 결정 과정에 대한 교육보다는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이러한 유형의 이론적 배경에는 프로이드로 대표되는 정신분석학과 스키너로 대표되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다.

이 두 이론이 도덕과 교육에 있어서 행동을 통한 도덕적 규범의 내면화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도덕적 논의’¹⁸⁾를 통해 가치 원리를 도출해 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도덕교육이다. 인지적 접근 방식은 구체적인 도덕적 사태에서의 ‘도덕적 논의’를 통해 가치원리를 추출해 내는 접근 방식으로, 방향을 ‘행동 통제’에 두기보다는 ‘합리적인 가치 판단 능력의 신장’에 초점을 두고, 토의식 수업으로 진행하며, 평가 역시 ‘도덕적 논의’의 과정이 중심이다. 여기에서의 이론적 배경은 피아제(J. Piaget)와 콜버그(L. Kohlberg)의 인지 발달이론이다.

이처럼 도덕 교육은 행동을 강조한 결과중심의 도덕교육과 도덕적 논의를 통해 가치 판단 능력을 신장시키는 인지적 측면으로 구분되고 있다.¹⁹⁾

17) 김재식(1997), “초등 도덕과에서의 가치 탐구능력 신장을 위한 가치 분석모형의 적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4.

18) 이홍우는 ‘도덕적 논의’를 한다는 것을 도덕적 사태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그 특정한 행동의 도덕적 의미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범을 채택하고 비판하고,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홍우(1985), 「교육의 목적과 난점」, 교육과학사, p. 159.

19) 이러한 구분은 내용 중심의 도덕 교육과 형식 중심의 도덕 교육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내용 중심의 도덕 교육이란 전통적인 도덕 교육 방법론으로서 아동들에게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규범이나 덕목을 제시하고 인식시켜 습관화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방법이고, 형식 중심 도덕교육은 도덕적 추론 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두는 접근 방식으로 이성의 사용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김재식(1996), 「전환기의 국가와 윤리」, 한국교원대학교, p 350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도덕교육에 대한 형식적 구분일 뿐, 둘 다 인격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다.

도덕교육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에서의 비 교과 활동과 같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활동과 학교의 교과 활동을 통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인 도덕교육은 전통적으로 덕목을 이해시키고 이를 실천과 연관시키고자 하는 도덕교육이 주가 된다. 이러한 교육형태는 교사와 학생간에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상호 작용이 생략된 채 도덕적 지시나 훈화에 의해 기존의 가치나 덕목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행동의 습관화를 꾀하려는 교육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에서의 도덕과 교육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의 이상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수시키는 일과, 가변적이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의 가치 혼란을 극복하고, 자율적인 가치 판단능력을 가지고 주체적 가치 결정을 행하는 데 기본이 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과의 설정 근거는 교과로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특성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돈희는 도덕과 교육의 설정 근거로서 “현대의 일반 교과 교육이 도덕 교육을 체계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며 또한 도덕성에 관련된 지식의 증대와 도덕적 가치 탐구 자체의 방법론적 특수성은 별개 교과로서의 도덕교육을 당연시하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제시하고 있다.²⁰⁾ 이렇게 볼 때, 도덕과에서의 방법론적 특성은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 논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찾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에서는 가치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방법적 지식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즉 학생으로 하여금 도덕적 사태로부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가치 판단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로서의 도덕과 교육은 구체적인 도덕 사태에서의 도덕적 논의를 통해 도덕원리와 도덕적 사태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도덕적 행동과 관련짓

20) 이돈희(1998), 「도덕과 교육원리」, 교육과학사 p 273

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현행 도덕과 교육의 문제점

도덕과 수업의 방법론적 특성은 '도덕적 논의'에 있다. 만약 이러한 도덕과의 방법적인 특성인 도덕적 논의를 소홀히 하고, 교사의 일방적인 가치 전수와 같은 훈화식 수업이 된다면 도덕적 논의의 수업이 아니라 '도덕적 지시'의 교육이 되고 만다 '도덕적 논의'는 교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에 있지 않다. 논의의 형식은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방식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가치를 탐구하는 과정이며, 가치를 탐구하는 과정은 '도덕적 논의'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자극하고,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가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아무리 도덕 발달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에 맞는 도덕적 사태를 제시하고 '도덕적 논의'를 시작한다면 도덕 발달 수준의 신장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도덕적 논의'의 기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논의는 개방적인 토론을 전개한다. 논의의 방향이 미리 설정되어 있거나, 교사가 어떤 가치를 주입하고자 하는 도덕과 수업은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자극하기가 어렵다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에 기초한 다양한 도덕적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토론 참가자들의 자연스런 도덕발달을 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가치의 전수보다는 가치 판단을 내리는 방법과 절차를 배울 수 있게 하는 도덕과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가치 판단은 타당한 의견일 수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이상은 도덕과 수업이 도덕적 논의에 '터'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는 관습적 도덕규범의 전수자가 아닌 가치 판단하는 방법의 안내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동학생의 도덕발달 단계를 구실로 도덕적 논의의 과정보다는 감동 감화적 접근을 통해 기본 덕목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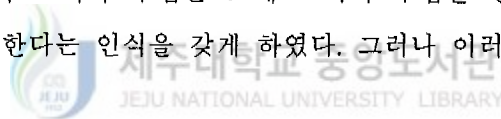
와 실천 동기를 부여하여 행동의 습관화를 기하려 하고 있다²¹⁾ 그러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도덕과 교육과정상 주로 교과서 구성과 학습 방법 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전래동화의 도덕과 교육에의 적용의 이유를 들어보고자 한다

도덕과 교과서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는 도덕 교과서²²⁾에 학생들이 논의해야 할 내용과 숙지해야 할 덕목이나 규범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제시되어있다.

제4차, 5차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인지적 접근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그 동안의 덕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을 강조하는 동양적 도덕 교육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도덕성의 합리적인 측면과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하는 서구적 도덕관에서 나온 것이다.²³⁾

이 같은 교육 방식은 도덕 수업 시간에 토의식 수업을 권장하게 되었고, 일선 학교에서의 도덕과 수업은 으레 토의식 수업을 통한 도덕적 논의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 접근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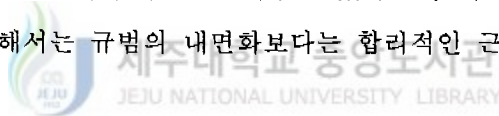


-
- 21)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1-2학년 바른 생활과가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 규범의 습관화를 강조함으로써 3~6학년 도덕과 교육을 위한 행동의 토대가 저학년에서 이미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3~6학년 도덕과에서는 이를 기초로 학생들에게 도덕적 규범의 내면화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고 해설하고 있다 교육부(1993),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 57
- 22)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8-10개 정도의 제재로 구성되어 있고, 한 제재는 대략 3개 정도의 소재제로 분할되어 다루어지고 있으며, 제재구성 기본 모형은 종래의 구성방식을 변형하여, ① 제재명과 도입을 ② 문제사태 ③ 규범에 대한 설명 ④ 실제로 해 봅시다 ⑤ 더 공부할 문제 ⑥ 금언이나 격언의 단계로 되어 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보조 교과서인 ‘생활의 길잡이’ 역시 기본적인 생활 태도 및 예절을 습관화하려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교육부(1993),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 65-83
- 23) 한국교육개발원(1991), 「제5차 초·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개발원연구 보고, p. 148

식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도덕 교과서의 구성 문제이다.²⁴⁾

현행 도덕 교과서에서는 교재의 구성상 논의하고자 할 주제에 대하여 제목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가 교과서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누구나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지적은 교육개발원에서 교사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는데, “교과서에 결론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토의식 수업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다.²⁵⁾

둘째, 아직도 여전히 덕목 해설식의 내용 구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도덕 교과서가 도덕적 판단력을 증진할 수 있는 논의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²⁶⁾ 교육과정상 드러난 내용이 사고를 요하는 ‘도덕적문제’가 아니라 주입과 실천을 요하는 ‘덕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범의 내면화보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도



24) 도덕과 교과용 도서로는 도덕교과서, 생활의 길잡이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3종으로 되어 있다 한 권의 도덕 교과서는 10-12개 정도의 題材로 구성되며, 한 題材는 대략 세 개 정도의 소제재로 분할되어 다루어진다. 교과서 제재의 구성 형태는 5단계의 기본 모형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단계인 도입 단계는 제목 및 도입 글이 제시되어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제1 소제재 단계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제2 소제재의 중심적인 도덕 원리의 제시 단계로, 다루고자 하는 지도 요소의 중심 개념 혹은 제1 소제재의 문제 사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로 덕목의 의미나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단계로는 제3 소제재의 지도 요소 확대 또는 심화 단계로, 제1 소제재에서 제시되었던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소되는 ‘모범적인 도덕적 실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째 단계는 격언이나 금언을 제시하여 도덕의 중요한 덕목을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도덕적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 의지를 북돋우고자 하였다. 교육부(1996), 「도덕과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pp. 24~26

25) 한국 교육개발원, 앞의 책, p. 64

26) 한국 교육개발원, 앞의 책, pp 101-148 참조

덕교육이 요구된다

2. 전래동화의 도덕교육적 의의

1) 전래동화

(1) 개념

전래동화의 개념은 최윤식·김기창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그는 전래동화를 옛날부터 전해 오는 동화를 전래동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심을 바탕으로 하여 꾸며진, 일정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신변 잡담이나 역사적인 사실 또는 현재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래동화가 아니며 전래동화 중에는 사실을 가장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닌, 사실적인 이야기이다. 전래동화는 사실 여부보다는 문학적인 흥미와 교훈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 했다.

동심은 어린이의 마음이다. 어린이의 마음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眞)·선(善)·미(美)에 근접되어 있다. 동심은 아동문학의 원동력이요, 생명력이다. 동심은 아동문학의 모든 장르, 개개의 작품에 깔려 있어 그것을 성인문학으로부터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 동심은 아동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마음속 깊이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어 때때로 동화 같은 것을 낳게 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한다.²⁷⁾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신화·전설·민담을 포함하는 설화가 있다. 설화는 옛사람들의 사고와 심리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옛사람들의 사고와 심리는 동심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설화는 모두 전래동화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전래동화는 설화의 한 부분일 뿐이고, 설화가 모두 전래동화인 것은 아니다. 설화 중에서 그 이야기의 밑바탕에 동심이 깔려 있고, 그것이 어린이들에게 유

27) 구인환 외(1975), 「아동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3.

익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래동화이다. 설화 중에는 그 내용이 성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어린이에게는 도덕적·교육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적당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전래동화라고 하기 어렵다.

전래동화에 해당하는 서구어로는 영어의 '포크테일(folktale)'과 독일어의 '메르헨(marchen)'이 있다. 그런데 미국의 설화연구자인 톰슨(S.Thompson)이 쓴 『TheFolktale』이나 『The Types of Folktale』에는 전래동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화·전설·민담과 같은 구비적 서사 양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folktale'의 번역으로는 전래동화보다는 '설화'가 더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영어의 포크테일은 전래동화보다는 설화에 가까운 말이고 독일어의 메르헨은 우리의 전래동화에 가까운 말이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²⁸⁾

전래동화는 아주 먼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왔는데, 그 중의 일부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비롯한 옛 문헌에 정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구전되고 있고, 최근에 채록되어 각종 설화집이나 전래동화 집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일찍이 문헌에 정착된 전래동화를 창작동화라 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는 전래동화를 구전동화라고 한다. 정착동화 중에는 옛 문헌에 정착된 것은 대개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본래의 모습이 바뀐 것이 많다.

(2) 형성과정

예술의 기원은 원시 종합예술에서 출발한다. 원시 종합예술은 언어, 음악 행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종교적 의미를 띤 예술적 행위를 표출하는데, 이것은 제천의례를 기반으로 한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삼한의 농공시필기에 행하는 5월제, 10월제 등이 원시종합예술이라 칭할 수 있는 제천의식이다. 이러한 의례는 서정문학, 서사문학, 극문학 등으로 분과된다. 서정문학은 민요와 같이 음악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다가 음악성

28) 최운식(1994),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pp91~92

이 사라지면서 서정시로 정착되고, 극문학은 행동적 요소와 더불어 집단 가무로 행해지는데 탈춤, 농악, 인형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극문학은 행동적 요소가 사라지면서 문자언어로 정착된 결과라 하겠다. 서사문학은 음악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가 약화되고 언어적 요소가 강화된 문학 장르이다.

고대 원시종합예술은 서정, 서사, 극 양식이 종합되어 형성된 것인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하여 서정, 서사, 극이라는 문학 양식으로 분파되었을까, 이에 대한 해명은 서사작품 곧 전래동화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앞서 밝힌 바에 따르면 원시종합예술은 제천의례에서 행해졌던 예술양식이며 종교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종교적 신앙은 신앙의 대상을 향하여 신앙민의 기원을 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원내용은 언어를 통해서 표출하면서 음악적 요소를 덧붙이기도 하고, 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오늘날의 민간신앙인 굿이 바로 그것이다. 굿은 원시종합예술의 잔영으로 음악, 언어, 행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술형태이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이 모두 구비문학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지만 구전자료가 일천한 우리의 상황으로는 문헌에 기록된 구전자료도 구비문학영역에 포함시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문학 영역에서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토대로 구전되는 요소를 찾고, 그에 따른 민속 현상을 참고로 향가를 해석해 가고 있다. 따라서 구비문학은 구전되는 것을 포함함은 물론 문헌에 기록된 구비작품까지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다.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화는 신성시되는 이야기로 신화의 전승자는 신화를 진실하며 신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꾸며낸 이야기라고 인정되어도, 신화의 세계는 일상적인 경험 이전에, 일상적인 합리성을 넘어서 존재한다고 믿고, 그 진실성과 신성성을 의심하지 않을 때, 신화는 신화로서의 생명을 갖는다. 신화의 시간과 공간은 아득한 옛날, 일상적인 경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태초의 일이고, 특별한 신성장소를 무대로 삼는 것이 예사이다. 신화의 주인공은 신이며, 그의 행위는 신이 지닌 능력을 발휘한다. 신화는 민족의 범위에서 전승된다. 민족적인 범위에서 진실성과 신성성이 인정되고 있다.

전설은 전승자가 진실 되다고 믿고,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제시되고, 특정의 개별적 증거물을 갖는 이야기이다. 전설에는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사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인간의 좌절된 의지나 비극적 상황을 말해주는 경우가 많다. 전설은 증거물의 성격상 대체로 지역적인 범위를 갖는데 일정한 지역을 발판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적인 유대감을 가지도록 하고 애향심을 고취한다.

민담은 민간에게 전승되는 이야기로, 특정의 장소·시대·인물이 지적되지 않고 필연성이 전제되지도 않는 흥미 본위의 허구적인 이야기이다. 민담은 이야기 자체로 완결되며 증거물이 제시되지 않는다. 민담의 주인공은 일상적인 인간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이를 극복하고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신화·전설·민담은 위와 같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나 서로를 넘나들며 풍요롭게 전승되어왔다²⁹⁾

옛말은 어른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목적을 갖고 전해주는 이야기이므로 사실이라기보다는 허구적인 이야기가 많다. 시간적으로는 오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라 하며, 공간적으로 알 수 없는 깊은 산 속이거나 천상계라 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이 옛말을 들으며 문학적 상상력을 키워가게 마련이다. 그러면 신화, 전설, 민담이 갖는 문학적 요소는 어떤 것일까. 이것은 서사문학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이해될 것이다.

문학에는 문자로 기록된 문학과 언어로 구전되는 구비문학이 있다. 구비문학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을 전래동화라 칭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바, 그 특성을 살피는 작업은 전래동화의 문학성을 추출하는 것으로 왜

29) 장주근(1971), 「한국 구비 문학사(상)」, 고려대 민족문화 연구소, p. 639.

아동들이 어른들과 달리 전래동화를 즐기며, 동화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그들의 도덕성을 함양해 가는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문학적 가치의 유무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해 논의된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전래동화의 내용은 ①민간신앙(계절제, 가신신앙, 동신신앙, 무석(巫石)신앙, 동물신앙, 풍수신앙, 장승신앙, 민간의료 등) ②충·효·우애·신의 등의 윤리 ③민족의식 ④민중들의 생활의 멋과 지혜 ⑤민중들의 꿈과 소망 ⑥지배 계층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⑦웃음과 재치, 해학과 풍자³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자료

전래동화 자료³¹⁾는 다음과 같다.

번호	책 이 름	편 저 자	출 판 사	발행 년도
1	한국 전래동화전집 2	최인학	장원사	1970
2	" 3	"	"	"
3	" 4	"	"	"
4	" 5	"	"	"
5	옛날이야기 선집 1권	엄석재	교학사	1971
6	" 2권	"	"	"
7	" 3권	"	"	"
8	" 4권	"	"	"
9	" 5권	"	"	"
10	옛날 이야기①	한상수 외	한국자유교육협회	1973
11	" ②	"	"	"
12	" ③	"	"	"
13	" ④	"	"	"
14	한국 전래동화전집	편집부	신진출판사	"
15	한국 전래동화	박홍근	을유문화사	1975

30) 최운식·김기창, 앞의 책, p 38.

31) 최운식·김기창(1998), 위의 책, pp 404~407. 표에서 ©는 최운식·김기창이 1988년에 작성한 목록에 신영순이 추가로 찾아 넣은 것임.

번호	책 이름	편저자	출판사	발행 년도
16	한국동화(어린이 세계명작 선집⑩)	장민영	동아출판사	1976
17	꽃감과 호랑이	김요십	동서문화사	"
18	한국 전래동화전집 (소년 소녀 세계문학 전집)	이원수	계몽사	1977
19	한국 전래동화	박목월	삼성당	1978
20	당나귀알	이영호	기미문화사	1979
21	한국 전래동화집1	이원수 손동인	창작과 비평사	1980
22	" 2	"	"	"
23	" 3	"	"	"
24	" 4	"	"	"
25	" 5	"	"	"
26	민간설화	최인화	계몽사	"
27	한금의 케	우현민	서문당	"
28	한금의 케	"	"	"
29	마지막 남은 깃발	"	"	"
30	피리 부는 호랑이	"	"	"
31	무영담의 노래	"	"	"
32	벼루와 꽃감	"	"	"
33	소금장수와 호랑이	"	"	"
34	금 나와라 똑딱	"	"	"
35	하늘을 나는 아이	임석재	"	"
36	귀신을 쫓는 아이	한윤이	"	"
37	금강산 여우와 이울곡	임석재	"	"
38	선녀봉이 된 효녀	이상보	"	"
39	이야기 샘 1	손춘익	일지사	"
40	세계민화선집①한국편	석용원	보이스사	1981
41	전래동화(1)	김성도	금성출판사	"
42	전래동화(2)			"
43	전래동화(3)			"
44	신화와 설화(4)	윤일숙	"	"
45	민화와 전설(1)	최익환	"	"
46	민화와 전설 (2)	장수철	"	"
49	풍자와 우화	최인화	"	"
50	우리 나라 전래동화집	안현상	교육사	1982
51	우물 안 개구리	최인화	예문당	"
52	옛날 이야기	권오석의	대일출판사	"

번호	책 이름	편 저 자	출 판 사	발행 년도
53	한국 옛날 이야기	성동호	계림출판사	"
54	세 가지 유물	기봉상	예문당	"
55	한국 전래동화집 6	순농인	창작과 비평사	"
56	" 7	"	"	"
57	" 8	최래옥	"	1983
58	한국 전래동화집 9	최래옥	창작과 비평사	1983
59	" 10	"	"	"
60	◎꼬리 잡힌 호랑이	선수복	민문고	"
61	개와 고양이	심경석	"	"
62	한국 전래 동화집	최래옥	창작과 비평사	"
63	옛날 이야기	편집부	예림당	1984
64	이야기의 샘 2	손춘익	일지사	"
65	◎금강산 호랑이	이원수	웅진출판사	"
66	◎명숙 나라의 도둑 귀신	"	"	"
67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	"
68	◎제주도 이야기 1	현길연	창작과 비평사	"
69	◎ " 2	"	"	"
70	◎효자와 목마	최주연	서산문화원	1985
71	◎효자 바위	"	"	"
72	한국 전래동화집	성동호	계림출판사	"
73	한국의 전래동화	신현득	견지사	"
74	우리 나라 전래동화 1	이영준	상서각	"
75	" 2	"	"	"
76	" 3	"	"	"
77	" 4	"	"	"
78	" 5	"	"	"
79	한국 전래동화 1	이효성	예림당	"
80	" 2	신현득	"	"
81	한국 전래동화집 12	최래옥	창작과 비평사	"
82	◎ "	"	"	"
83	한국 전래동화 1	최범서	지경사	"
84	◎여우가 준 하얀 수건	이준연	중앙일보사	"
85	◎해님 달님	"	"	"
86	바람값 삼만량	"	햇빛출판사	"
87	구렁덩덩 신선비	"	"	"
88	도깨비방망이	"	"	"

번호	책 이 름	편 저 자	출 판 사	발행 년도
89	소금장수 형제와 도깨비	순춘익	현암사	"
90	연오랑 세요녀	"	"	"
91	자라가 준 구슬	"	"	"
92	한국 전래동화 선집	김한몽	대일출판사	"
93	구두쇠와 구두쇠	이원수	견지사	"
94	한국 전래동화 3	김원석	예림당	"
95	한국 전래동화집14	최래옥	창작과 비평사	"
96	" 15	"	"	"
97	전래동화(교학사 유년 문고⑨)	김원석	교학사	1986
98	전우치와 황금 대들보	최하림·김명 인	폴빛	"
97	전래동화(교학사 유년 문고⑨)	김원석	교학사	1986
98	전우치와 황금 대들보	최하림·김명 인	폴빛	"
99	땅 속 나라 도둑 귀신	최하림 김명인	폴빛	1986
100	하늘나라 쌀계짜	"	"	"
101	구렁덩덩이	"	"	"
102	복타러 가네	"	"	"
103	빨간부채 파란 부채	"	"	"
104	한국의 전래동화	박종현	예찬사	"
105	옛날이야기 시리즈	이규희 외	예문당	"
106	한국전래동화 2	이효성	지경사	"
107	한국전래동화집 1	이창준	샘터	"
108	" 2	김요섭	"	"
109	" 3	김원일	"	"
110	" 4	윤후명	"	"
111	한국 전래동화 I	주대현 외	경미출판사	"
112	" II	"	"	"
113	한국 옛날 이야기	김성도	계림출판사	"
114	한국 전래동화	성동호	홍신문화사	"
115	옛날 이야기 1	이영준	대일출판사	"
116	" 2	"	"	"
117	고전동화극장	송명호	남광	"

번호	책 이름	편저자	출판사	발행 년도
118	한국의 건설	이효성	"	"
119	북치는 소년	이준연	햇빛출판사	"
120	기러기가 된 표주박	"	"	"
121	심술쟁이 할멈과 세 아들	손춘익	현암사	"
122	궁초댁기의 노래	"	"	"
123	호랑이의 치료비	이훈중	견지사	"
124	은혜 깊은 두꺼비	김문소·이희철	민문고	"
125	무겁나 땀뭍 가법다 땀뭍	최하림·김명인	풀빛	"
126	단방귀 장수	"	"	"
127	옛날 이야기	"	"	"
128	옛날 이야기	윤극영 외	예림당	"
129	팔도강산 옛날 이야기	이강숙	남광	1987
130	힘센 할망과 피많은 하르방	손춘익	현암사	"
131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곽하신	범우사	"
132	한국전래동화집 5	한승원	샘터	"
133	작은 영웅	현기영	"	"
134	호랑이 이야기	한상수	"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전래동화의 교육적 의의와 기능

전래동화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학습자로 하여금 전인적인 특성을 갖게 해준다. 전래동화 교육이 기대하는 전인적 특성은 바른 사고력과 언어능력을 갖추고, 고난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며,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따스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둘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다. 전래동화는 우리 조상들이 남겨 준 문화 유산으로 그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풍속, 습관, 생활, 사상, 신앙, 가치관, 꿈과 소망, 웃음과 지혜 등 전통적인 요소들이 많이 용해되어 있다.³²⁾ 전래동화는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 유산으로 충·효·우애·신의 등의 윤리생활과 멋과 삶의 지혜, 조상들의 꿈과 낭만, 지배계층이나 낮은 권위에 대한 항거, 웃음과 재치·해학과 풍자 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정서와 가치관을 가진 인간이 되게 해준다.

김기창·최운식은 전래동화가 갖는 교육적 기능³³⁾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전래동화는 상상력의 소산이므로, 전래동화의 청자나 독자는 이를 통하여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상상력은 현실로부터 해방을 맛보게 해주고, 보상적 만족을 주며,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고능력이 다.

둘째, 전래동화는 말로 표현 된 것이므로 청자나 독자는 이를 통하여 언어능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전래동화는 구연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말하기·듣기능력 신장에 중요한 몫을 한다.

셋째, 전래동화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겪어온 삶의 다양한 체험, 사상, 감정, 지혜, 용기, 가치관 등이 용해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래동화의 청자나

32) 최운석·김기창(1998), 앞의 책, p. 52

33) 최운석·김기창(1998), 위의 책, pp.51~52

독자는 이를 통하여 분학적 체험을 풍부히 함은 물론 한국인다운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을 배우며, 한국적 정서와 가치관을 함양하고 심화시켜 갈 수 있게 된다.

넷째, 전래동화는 청자나 독자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켜 즐거움을 주면서 동시에 교훈을 준다. 그러므로 전래동화의 청자나 독자는 이를 통하여 즐거움과 함께 충·효·우애·신의 등의 윤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이 무엇이며,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배우게 된다. 특히 전래동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인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쟁취한다. 전래동화의 이러한 구성은 어린이들에게 고난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준다.

다섯째, 전래동화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풍속·습관·생활·사상·신앙 등이 녹아 있고, 우리 조상들의 곳곳한 힘과 슬기, 빛나는 지혜, 소박한 꿈 등이 용해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래동화의 청자나 독자는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전래동화는 구연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연은 화자와 청자의 대면이 필수적이다. 전래동화의 이러한 전달과정에서 화자와 청자의 인간관계가 깊어진다. 어린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선생님, 친척, 친구 등과 전래동화를 주고받으며 이들의 따스한 사랑과 훈훈한 인정을 체감하게 된다. 이처럼 어린이는 전래동화의 수수(授受)를 통하여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따스한 인간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게 된다.

또한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자라면서 조상의 영향을 받는다. 그 영향은 어릴 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전래동화는 정의와 명예를 지키며 그 감각을 몸에 익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해야 하기에 전래동화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래동화가 하나의 흥미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만 치부된다면 전래동화의 가치는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래동화에 포함된 교육적 덕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직이다.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동들에게 정직을 교육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선조들은 생활양식에서 권선징악을 철칙처럼 여겨왔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할 여지가 많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부와 명예를 축적한 사람은 지속됐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게 전래동화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주제로 한 제주 전래동화는 大浦 元刑房과 李座首 등이 있다. 34)현용준의 「제주도 전설」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조 숙종 때, 중문면(中文面) 대포리(大浦里)에 원형방(또는 玄刑房이라고 하기도 한다)이 살았었다. 문장이 좋고 언변이 좋고 인물이 뛰어나서 중문면 중문리 무우남밭 이좌수(李座首)와 친교가 두터웠다

두 사람은 모든 일을 가슴을 터놓고 의논하는 사이였는데, 원형방이 이좌수보다 먼저 죽었다

하루는 밤에 이좌수가 집에서 자고 있노라니, 멀리서 말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틀림없이 원형방이 살았을 때 말방울 소리였다

(어제 원성방(元刑房)은 죽었는데, 말방울 소리가 나는고?)

이렇게 생각하는 새에 말은 문간에 다달았다

“이좌수 자십니까?”

“거, 누계?”

원형방이 틀림없었다 사실을 물어보니, ,오늘이 제삿날이어서 제사를 받아 먹으러 왔다가 불쾌한 일이 있어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다.

“거 어떤 말인가? 조금 소상히 말하여 보게.”

“아, 그런 게 아니라, 와 보니까 멧밥에 구렁이를 담아 올려 놔서 음복할 수도 옷소(없고), 껌스럼기에 아이새끼 계영국(갱국·탕국)데레 그리쳐 된(두고) 감십주(가고 있음지요). ”

이렇게 말하고는 그만 말방울 소리를 울리며 가 버리는 것이었다.

이좌수는 이튿날 대포리에 가서 소식을 들었다. 간밤은 원형방의 제삿날인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며느리가 탕국을 뜨러 부엌에 가서 아이를 한 손

34) 현용준(1996), 「제주도 전설」, 서문당, pp.118~121.

으로 안은 채 탕국을 뜨는데, 아이가 그만 파질락 하니 탕국 솥에 떨어져 죽었다 한다 아이가 죽으니 제사고 뺏이고 다 집어치우고 집안이 온통 뒤집어졌다 는 것이다

이좌수는 제삿집에 가서 사실을 알아보았다 소문난 그대로였다. 이좌수는 멧밥 그릇을 가져와 보라고 하였다. 아이가 죽으니 음복(飮福)도 아니해서 멧밥은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멧밥을 헤쳐 보니, 멧밥 속에 과연 머리털이 하나 들어 있더라고 한다 머리털은 영혼에겐 구렁이로 보이며 아주 꺼리는 것이다.

이듬해 또 그맘때가 돌아왔다 이좌수가 밤에 자고 있노라니, 다시 원형방의 말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보니 원형방이었다. 사연을 물으니, 오늘 제삿날이어서 제사를 받고 가는 길인데, 부탁이 있어 들렀다는 것이다. 부탁의 말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원형방은 지금 저승에서 형방이 될 것인데 이승에서의 빛을 갠지 못했기 때문에 형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빛이란 원형방이 살았을 때 그 곳의 마소가 무등이왓(安德面東廣里) 아무개네 밭에 들어 보리를 먹어 버린 일이 있는데, 그 값으로 보리 여섯 바리를 갠지로 한 것이라 한다 그 값을 갠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형방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자식을 불러서 이 빛을 갠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이좌수는 이튿날 원형방의 아들을 찾아갔다 간밤이 원형방의 제사임이 틀림 없었다 이좌수는 간밤에 겪은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 주었다

원형방의 아들은 무등이왓을 찾아가서 알아보았다 과연 보리 여섯바리 빛이 있었다 아들은 그것을 물어주었다

이튿해였다 다시 제삿날이 돌아오니, 원형방은 이좌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고마운 말을 하러 왔다고 했다 보리 빛을 물어주어서 덕택으로 저승의 형방이 되었다고 한다.

둘째는 효이다

가정에서의 효는 유교의 삼강오륜에서 출발한다. 유교의 윤리 덕목 중에서 효는 그 중심을 이룬다. 효를 주제로 한 제주 전래동화 중에는 효의 실천 방법을 설명하는 것들이 많다. “수월봉과 녹고물”처럼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속에서 효를 가족질서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수월봉과 녹고물”³⁵⁾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5) 박재형(1998), 앞의 책, p 106.

수월이와 녹고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병들어 지성으로 간호를 했으나 낫지 않았다 그러다가 꿈속에서 신선이 나타나 백가지 약초를 가르쳐 주었다 남매는 구십 구가지 약초는 구했으나 오갈피를 구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절벽에서 오갈피를 발견하여 캐다가 수월이는 떨어져 죽었다 그 후 녹고의 눈물이 샘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셋째는 보은이다.

우리 선조들은 대부분 동물을 앞세워 보은을 강조해 왔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도 꼭 은혜에 보답하는 충직한 동물을 등장시킨 것은 불교사상과 유교적 실천의식이 합해져 강조된 것이다.³⁶⁾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유교적 의식이 전래동화에 나타난다. 그 외 이와 같은 자료로는 개무덤(성읍), 여우 잡은 개, 감목관 김씨, 어진 고행방 등이 있다. 보은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제주 전래동화인 ‘어진 고행방’³⁷⁾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정의현에 ‘어진 고행방’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남달리 성품이 어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시대에는 제주도에도 양민들이 마음놓고 나들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적 떼들이 득실거렸다 하루는 정의현의 관군들이 도적 떼를 잡아가다 하옥시키고는 이튿날이면 모조리 사형을 집행할 참이었다 고행방은 야음을 타 남몰래 감옥으로 들어가서 도적 떼들을 구해주었다 도적 떼들의 행위는 굶주림에서 살아나기 위한 처사라고 믿는 어진 마음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정의현에서는 제주목에 장계를 올리려고 했으나 모두가 도적 떼들을 무서워하여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나 어진 고행방은 불쑥 나섰다. 도적들이 바로 하옥되었을 때, 어진 고행방이 구사 일생으로 목숨을 건져준 도적들이었다. 그들은 어진 고행방을 극진히 대해 주었다. 다른 도적들로부터 피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제주목까지 호위를 해 줬는가 하면 양민들로부터 갈취한 고기를 한 짐이나 지고 가라고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진 고행방은 ‘도적질한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하여 받지 않았다고 한다

36) 장영주(1995), 앞의 책, p. 30.

37) 박재형(1998), 위의 책, p. 119.

넷째는 우애이다.

전래동화에 보면 우애는 대부분 형제간, 친구간의 관계로 나타난다. 제주 전래동화에 나타난 우애의 경우를 살펴보면 힘센 남매, 시흥리 현씨 남매, 야구붕이와 두루붕이, 왕지네 등이 있다. 우애를 주제로 한 대표적인 제주 전래동화의 시흥리 현씨 남매³⁸⁾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약 500년전 현씨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힘이 센 자식을 낳겠다고 늘 생각하여 소 열 마리를 먹고 아들을 낳으리라 믿었는데 딸을 낳았다. 딸은 물을 길어 오다가 사슴을 발견하고는 허벅을 꿰어지고 뛰는 사슴을 앞질러 가서 두 뺨을 잡고 사슴을 잡을 만큼 힘이 세었다. 그러다 현씨 부부는 이번에는 소 아홉 마리를 먹고 아들을 낳았다. 아들 또한 힘이 세었다. 씨름판에서 지는 경우가 없어 기세 등등한 현씨 아들을 군중들이 몰매를 주려고 하자 남장을 한 누나가 씨름판에서 이겨 위기에 빠진 동생을 구해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다섯째는 적공이다.

공을 쌓아두면 덕을 얻는다라는 말과 상통한다. 덕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아 올려지는 것이다. 그 만큼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적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제주 전래동화는 '죽었다 산 사람'이다

이로써 전래동화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아동들이 전래동화의 덕목을 익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 전래동화의 도덕교육적 의의

(1) 도덕적 가치 판단력의 신장

38) 현용준(1976), 앞의 책, pp 186~188.

현실적으로 아동들이 당면하는 도덕적 문제는 기존의 규범이나 규칙이 적용되는 문제이기보다는 규칙이나 규범이 서로 갈등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덕 규범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따져 보고, 새로운 사태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포기하거나 개선할 줄 알아야 한다. 도덕과 교육은 단지 덕목의 실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해결에 직면했을 때, 행동을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주 전래동화의 도덕교육적 의의는 아동들의 도덕적 가치 판단력 신장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의 산물인 제주 전래동화의 “죽었다 산 사람”을 들 수 있는데, 논의의 전개를 위해 「제주 설화 집성」³⁹⁾에 소개되어있는 내용을 간략히 예를 들어본다.

김정승의 외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저승으로 가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염라대왕이 저승문서를 걷다 보니, 아직은 저승에 오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었다. 염라대왕은 당장 저승차사를 불러 세워 놓고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다. 저승 차사는 이승으로 가서 먼길을 걷다 보니 매우 피곤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마침 저 사람(김정승의 아들)이 지나가고 있기에 대신 잡아 왔노라고 일렀다. 염라대왕은 김정승의 아들을 당장 이승으로 내보내라고 하명했다. 김정승의 아들은 이승으로 나오기 위하여 백강아지의 뒤를 따라 연못에 풍덩 빠졌는데, 곧 저승 열두 문에 당도했다. 그러나 인정(돈)⁴⁰⁾이 한푼도 없었기 때문에 저승 문을 빠져나오기 어려웠다. 때마침 한 쪽에 보니 주모 함씨의 돈 창고가 있었다. 주모 함씨는 이승에서 소경이면서도 술장사를 하며 모은 돈을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었다. 그가 도와 준 돈만큼 저승창고에 돈이 싸여있는 것이다. 김정승의 아들은 그 돈을 빌어서 저승 문을 통과할 때마다 인정을 걸며 삼일만에 나올 수 있었다.

이 말을 아들에게 들은 김 정승은 함씨 주모에게 원하는 대로 돈을 갚으려 하지만 함씨 모는 이를 거절한다. 그러나 아들의 말을 들은 김정승은 꼭 돌려주

3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85), 「濟州說話集成」,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 805~811.

40) 타도의 전래동화(“덕진다리”-「한국 전래동화집」, 12권 및 제주전래동화(“이승의 죄를 면한 영혼”-「한국구비문학대계」, 9-2 pp. 51~54)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승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면 저승에 인정을 모을 수 있다고 전승되고 있음.

기를 원하기에 차마 거절 할 수 없었던 주모 함씨는 양반의 신분으로 먼길까지 백냥을 짊어지고 온 성의를 생각해서 그 돈을 받아들인다. 그러자 함씨 주모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 이승에서는 물론 저승에서 좋은 일을 하며 잘 살았다고 한다.

이 전래동화가 나타내는 덕목은 우선 함씨 주모의 성실성과 근면성, 그리고 남을 위하는 정신 등이다. 이러한 덕목들은 아동(독자)에게 '성실하라', '근면하라', '분수를 지켜라', '남을 도우라'는 등의 도덕규범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야기는 도덕적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다. 함씨 주모와 김정승의 사고나 행위의 결과를 초래한 과정을 반성해 봄으로써 아동 스스로가 도덕적 사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반성과정을 통해 그들 등장인물들의 도덕관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 함씨 주모는 주막에서 술을 파는 주모로서 비록 자신은 술을 팔며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런 중에도 자신이 봉사이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며 부지런히 산다. 하지만 함씨 주모는 봉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갈취당하는 지를 알지 못한다. 함씨 주모는 선행을 하고 있다고 아동은 생각한다. 이렇게 악에 대한 선행 결과는 저승창고를 가득 차게 한 것이다.

한편 김정승의 아들은 죽어서 저승을 갔으나, 아직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저승사자가 잘못 데려온 것이 밝혀져 이승으로 살아 돌아오게 된다. 그 때 저승에서 인정을 쓰기 위해 저승창고를 돌아보니, 김정승의 창고는 텅 비었고 함씨 주모의 창고만 가득하였다. 그것은 함씨 주모가 이승에서 선행을 베푼 것과 갈취를 당한 돈들이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김정승의 아들은 함씨 할머니의 창고에서 돈을 빌어 인정을 쓰고 이승에서 갚기로 약속하였다.

다시 살아난 김정승의 아들은 저승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아버지인

김정승에게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전해들은 김정승은 함씨 주모에게 몇 곱절로 갚으려 한다. 그러나 저승을 가 본 일이 없는 함씨 주모는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김정승은 몇 번이고 거듭 권한다.

여기서 김정승은 한두 번 권하는 것이 아니고 기어이 함씨 주모를 설득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이러한 자세가 김정승의 뜻이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만약 이 때, 함씨 주모가 자기의 개인적인 부를 고려한다면 못이기는 척 그 권유를 받아들일 수 있다. 만약 함씨 주모가 부자가 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했다면 그는 이 권유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을 것이다.

결국 함씨 주모는 김정승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런데 김정승 측에서는 아들이 저승에서 진 빛을 갚는 일이 자신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아가 빛을 몇 곱절로 갚음으로써 함씨 주모의 선행을 포상하려는 김정승의 행위는 개과천선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 시점에서 김정승에게는 자신의 집에 돈을 쌓아 두고 부를 유지하는 것보다 저승에서 자신의 아들이 함씨 주모에게 진 빛에 대해 몇 곱절로 갚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승 역시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가 없었다.

이러한 김정승의 뜻을 고려한 함씨 주모는 김정승의 입장에서 보다 큰 가치를 선택하게 된다. 김정승이 자신의 집에 부를 쌓아 놓고 느껴야 하는 고통스러움에서 그 돈의 얼마를 덜어줌으로써 김정승의 부담감 없애줌과 동시에 외아들이 살아 돌아온 기쁨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제주 전래동화는 김정승의 아들과 주모 함씨와의 관계 속에서 아동들에게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2) 도덕적 통합성의 개발

전래동화의 도덕교육적 의의는 도덕적 통합성을 개발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도덕적 통합성이란⁴¹⁾ ‘사고와 행위’, ‘사고와 감정’, ‘사실과 가치’ 등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이 모든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도덕적 능력을 말한다. 본 절에서는 이에 관련된 전래동화 교육의 도덕 교육적 의의를 살펴본다.

도덕교육은 아동이 행해야 할 행위를 알려 주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 이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의 맥락을 지각하고 사고하게 하는 일 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그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통제하고 훈련시키는 데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예리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지적인 경험을 보다 감성적으로 이끌며 욕구를 보다 지적으로 이끌도록 하는 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도덕교육은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또는 중요해야만 되는 것’으로서의 ‘가치’를 제시해 주는 한편 아동이 반성과 음미를 통해 그러한 가치를 ‘발견된 것 즉 사실’로서 다루도록 하는 일도 포함된다.

전래동화에 나타난 가치들 중에서 개인에 관계된 가치로는 결백, 정절, 허욕경계, 참마음, 자각, 입지, 근면, 인내, 검약, 불로장생, 현세 이익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가치는 고대 사회의 무속으로부터 도교, 불교, 유교 등의 종교사상이 유입 혼합되어 형성된 한민족의 개인적 가치들이라 하겠다.⁴²⁾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가치들로는 효, 형제애, 가족애, 우애, 화합, 관용, 후덕, 겸손, 감사, 보은 등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효나 가족애의 경우는 지나치게 가족 중심적 성향을 띠게 되어 그릇된 행위나 결과를 초래하기도

41) 정대련(1990), “한국 전래동화의 윤리학적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97.

42) 한국 문화의 변화가 삼국시대 초 무속, 도교 기층에서 불교로 융합 진이한 때와 조선 초 불교에서 유교로 융합 진이된 때에 있었다. 비록 도교, 불교, 유교가 다른 문화로부터 수입된 것이기는 하지만, 교차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한민족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이질적 문화 요소들을 융합함으로써 한국 문화 및 사상의 전체를 수립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자기 문화 속에 융합되었을 때에는 본래 이질적인 문화요소도 결코 그 연원이 다르다고 해서 전통문화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인정되어 흡수되기 때문이다(심재룡(1987), “문화 교차의 맥락에서 본 한국전통사상의 정체”, 『한국문화』 8, p. 174.)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효도하라, 자비심을 베풀라, 화합하라,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라 등의 규범적 가치로서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사회에 관계된 가치로는 호국, 국가 또는 군주에 대한 충성을 들 수 있다. 이는 호국불교사상이나 유교의 사군이충(事君以忠) 정신이 핵을 이룬 가치들이다. 이들 가치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한 사회를 형성하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직 규범의 기초가 되어 왔다. 제주전래동화 중에서 충성을 하는 이야기로는 귀한 진주를 바치는 <구슬 할망>과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다랑쉬 오름에 올라가 항을 사르자 한양에서 향내가 진동했다는 <고성 홍효자> 등이 있다.⁴³⁾ 그러므로 많은 충신들에 얽힌 이야기들이 국가와 군주를 위해서는 개인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래동화를 통해 아동에게 전해지는 이상의 가치들은 관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은 옛날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전통적 관례에 접하게 되고, 모방과 동일시를 통해 그것들의 많은 부분을 습득하게 된다. '관례' 속에 태어난 아동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대체로 그 관례에 일관된 '마음의 결'⁴⁴⁾을 형성하게 된다.

전래동화에 나타난 가치들은 관례적 도덕규범의 근거가 되어 왔다. 도덕 규범은 행동의 '방식'이나 생활의 '양태'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지켜지도록, 즉 구체적인 행동이나 생활로 실천되도록 기대되는 규칙이다. 규범들은 생활의 필요에 의해 가르쳐지며 동시에 지켜지도록 요구된다. 아동은 정직이나 효도 등의 도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지적으로 충분히 성숙하기 훨씬 전부터 정직하도록 혹은 효도하도록 요구되고 또한 그 요구에 응하면서 성장한다. 아동은 도덕규범을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그 규범을 실천하도록 요구받는 것이다.⁴⁵⁾

43) 박재형(1991), 「제주도 전래동화」, 대교출판

44) 듀이는 인간이 대체로 '관례'에 일관된 '마음의 결(texture of mind)을 형성해 간다고 하였다 (이홍우(1984), 「교육의 목적과 난점」, 교육과학사, p 227)

그러나 정직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배우는 것은 수영을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실천이나 모방에 의해 곧바로 체득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이 정직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참과 거짓, 신뢰와 불신 등 다른 모든 종류의 개념에 관해 알고 있을 때 가능해진다. 이런 이해는 반복과 능숙한 실천만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아동은 관심의 대상으로 어떠한 행동 특질이 선택되는 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도덕교육은 아동에게 어떤 도덕적인 개념, 판단, 원리들과 그에 대응하는 감정, 태도, 행동간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도덕적 통합성을 계발하는 데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교사나 부모가 말로는 찬양하면서도 그들의 행위나 태도를 통해서 그것에 위배되는 것을 보일 경우, 아동은 도덕적 개념과 도덕적 입장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도덕교육 담당자는 적절한 시기에 아동에게 그의 도덕판단과 원칙이 의미하는 바를 일깨워 주어야 하며 그의 행위가 그것과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가를 반성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다양한 도덕적 상황을 제시하여 그러한 상황의 특성을 이해하며 나아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덕적 상상력을 계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은 덕목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일러주는 지적활동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도덕적 상황에 대한 배려를 하기가 힘들며, 전인적인 도덕성 발달을 뒷받침해 줄 정서적 유대감도 갖기 어렵다. 이에 도덕교육 담당자는 아동과 함께 정서적 유대감과 공유 경험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적 도구로 전래동화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전래동화에서 찾을 수 있는 전통적 가치의 내용들은 오늘날의 부모나 성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례적 도덕과 일맥 상통한다. 따라서 아동은 전래동화를 읽음으로써 이러한 관례적 도덕을 접하고 전통적 가치들을 간접적으로 체험

45) 이돈희(1989), 「도덕교육원론」, 교육과학사, p 308.

하게 되는 것이다.

전래동화에 나타나 있는 사태들은 도덕생활의 생생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그 속의 주인공들이 나타내고 있는 동기와 결과, 그리고 민감성과 감정, 또한 신념과 결단 등은 도덕적 사고와 실천에 유용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의 실천원리 혹은 지혜를 제공한다.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생활 사태 혹은 행동 사태를 제시하면서 도덕적 원리를 검토하고 흥미하게 하는 일은 도덕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일에 속한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문제사태는 대체로 구체적인 생활장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도덕적 문제상황을 이야기를 통해 제시해 줌으로써 공통된 경험을 형성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탐구하게 하는 것은 도덕교육의 효과를 배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수 차례씩 반복되는 전래동화의 사건전개 형식⁴⁶⁾은 아동에게 반복 경험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선하고 동일한 행동이 되풀이되는 과정이나 또는 악한 행동이 벌을 받는 장면이 거듭되는 과정⁴⁷⁾은 아동에게 시적 정의감⁴⁸⁾을 일으켜 아동을 전래동화에 몰입하게 한다. 동시에 아동은 상상의 세계 속에서 등장인물과 일체가 되어 그 모든 사건과 도덕적 내용을 함께 반복 체험하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전래동화는 아동이 전통적 관례적 가치의 구체적 내용을 배우며 반복적인 간접 체험을 통하여 도덕적 통합성을 계발하는 도덕교육의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3) 도덕적 사고 능력의 배양

도덕적 사고는 도덕문제에 관하여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사고한다 함은 스스로 사고하기 즉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46)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는 "할멈 할멈, 떡 한 개 주면 안 잠아 먹지"하는 말이 세 번 반복된다. 선악이 결부된 반복은 두 번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47) 제주전래동화인 경우 '콩쥐 팥쥐' 등이 있다.

48) 석용원(1998), 「아동문학개설」, 예문관, pp 88~90.

말한다. 한마디로 도덕적 사고란 도덕문제를 주체적으로 반성하고 추론하며 판단하는 것이라 하겠다.

도덕적 문제나 논쟁에 임하여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를 따르고자 한다. 적절한 도덕판단이란 탐구의 절차적 원칙에 따른 판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의 또 하나의 임무는 아동에게 도덕판단에 관련된 기술을 계발해 주고 그러한 기술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길러줌으로써 그의 도덕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전래동화에는 많은 도덕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각 상황에서 도덕규범을 적용하고 또 때로는 그러한 도덕규범을 재평가하기도 한다. 등장인물들은 한 도덕적 가치를 실천에 옮기는가 하면 보다 상위의 가치에 근거하여 그러한 실천의 정당성을 따져보기도 한다. 또한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살피는 일에서 도덕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 나아가 도덕교육은 아동이 등장인물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 즉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이 추론하고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논의 과정에 따라 그대로 사고해 보도록 추천할 수 있다

또한 도덕적 사고는 하나의 기본 가치에 제한 받지 않고 몇 개의 기본 가치들을 다수 선택하여 서로 비교하고 보완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려장⁴⁹⁾이라는 현실적 제도와 인간생명을 존중하라는 규범이 갈등하는 경우, 도덕교육은 그러한 갈등상황의 인식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일단 이야기의 상황이 한 도덕규범에 상반하여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그 규범이 함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검토하는 일이다. 즉 도덕규범 적용에 있어서 윤리적 사고의 전개는 이야기 상황의 기준(고령이나 병약, 또는 성품의 악함 등)이 예외적 조항이 되는 데에 합당한지를 따져보는 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백록어문(13)」⁵⁰⁾에 소개 되어있는 제주 전래동화의 예를 들

49) 옛날 제주도에 몸이 병들거나 나이가 70세 이상이 되면 구덩이나 굴속에 묻는 ‘고려장’제도가 있었다. 백록어문학회(1997), 앞의 책, pp. 228~229

50) 백록어문학회(1997), 「백록어문」 13호, 제주문화, pp 228~229.

어 논의를 전개한다.

옛날 제주도에는 나이 많은 늙은이나 몸이 병들어 쇠약한 사람은 죽기 전에 구덩이나 굴속에 묻는 ‘고려장’ 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제주도에 한 신하가 고려장을 할 나이가 다 된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고 마루 밑에 모시고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국천지에서 나무를 보내어 이름과 상하를 알아보도록 했는데 신하들끼리 몇 날 며칠을 의논해도 알 길이 없었다. 아버지가 자기아들이 근심이 있음을 눈치 채고 밥을 차려온 며느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물웅덩이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래이고,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위이고 나무이름은 상나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신하는 임금께 고려장 법을 어겨 아버지를 숨겨 왔었는데 답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사실대로 임금께 말씀드렸다. 결국 대국천지는 우리 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았고 ‘고려장’ 법은 없어졌다 한다.

이 이야기는 신하와 임금, 두 사람이 이상적 질서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하는 아버지를 고려장 하는 일이 차마 인륜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고려장을 하는 현실적 법을 지키는 것보다 부모를 봉양하는 이상적 질서를 택하였다.

고려장을 하려면 먼저 ‘산골짜기의 양지 바른 곳’에 굴을 파고, 그 속에 늙은이나 쇠약한 사람을 밀어 넣고 먹을 음식을 넣어준다. 그러다가 늙은이나 병자가 그 굴속에서 죽으면 유가족들이 끌어내 장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장을 옛 고구려 시대에 나라 법으로 시행하였다고 한다.⁵¹⁾

전래동화에 따르면, 그 당시 나이 많은 사람이나 병자들이 고려장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다고 한다. 또한 자손들도 살아 계신 부모를 나이가 많고 굴속에다 생매장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로서 차마 못할 일로 여겼다. 그러나 이를 어기면 나라가 무서운 벌을 내리기 때문에 마음만 아파했지 어쩔 도리가 없이 고려장을 당하고, 고려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1) 정대련(1990), 앞의 글.

그렇다면 왜 이토록 부모나 자식 양편이 모두 꺼리는 고려장을 나라 법으로 만들었는가? 이야기에는 오직 ‘늙거나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늙었다’는 것은 어느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가? 다른 지방의 전래동화⁵²⁾에는 고려장 해야할 연령이 60세로 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60세를 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평균 수명이 오늘날보다 짧았던 옛날에는 60세를 고령으로 또는 노령으로 여기기에 충분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 전래동화⁵³⁾에서는 어머니 나이가 예순이 넘도록 아들이 고려장을 하지 않고 봉양을 한다. 이런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다. “나이를 먹고 보니 이제 눈앞이 어둡고 귀조차 어정쩡하여 사람구실을 못하겠구나. 옛날에 쉰 이랑의 밭도 내 한 손으로 매고, 하루 베도 스무자 씩 짰는데 이제 송장이 다 되었으니 너 보기가 민망하구나. 나를 고려장 시켜라. 나라의 법이 잘 생겼다 사람이란 늙으면 그저 죽는 것이 자손들을 위한 길이다.” 그러나 아들은 거적을 덮어 숨겨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간다.

앞에 제시된 다른 지방의 전래동화에 기록된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노령의 의미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노령이란 한마디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은 시점을 말한다. 즉 노령이란 노인 자신이 평소에 하던 자기의 직분을 다할 수 없을 시점으로 자각하여 오로지 자식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만 연명할 수 있기에 자식과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시점을 말한 것이다. 살아 있으되 자기를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산 송장이라 할만큼 나이가 많아졌을 때가 고려장을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고려장이 생긴 이유는 늙은이가 계속 살아 있으면서 자식이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를 섬기는 수고를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에서 늙은이를 제거하여 젊은이로 하여금 그들의 노력을 자신들의 생활에 경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52) 이원수·손동인(1980), 「한국 전래동화집」 5, “중국 사신 물리친 늙은 어머니의 지혜”, pp. 300~318.

53) 이원수·손동인(1980), 위의 글.

병든 사람의 고려장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그 병이 어느 정도의 중세인가가 문제이겠는 데, 다른 지방의 동화에 등장하는 노인처럼 자신의 직분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회복불능의 환자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환자를 고려장 함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이 간호하고 치료비를 대는 데 겪게 될 수고로움을 제거하고 환자 자신도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는 것이다

주술적인 처방이나 초보적인 민방 의료 기술에 의존하던 고대사회에서 ‘불치의 병’으로 진단이 내려졌다면 그것은 사형선고와 같았을 것이고, 따라서 고려장도 법으로 제정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전체 사회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고려장을 국법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자식된 도리를 아는 신하로서는 차마 아버지를 생매장할 수가 없었다. 일국의 신하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그는 국법을 어겨서는 안 될 처지에 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은혜를 갚기는 커녕 도리어 매장을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신하는 ‘이런 나쁜 법을 없앨 수’ 는 없을까 하고 궁리한다. 결국 아버지를 마루 밑에 숨겨 놓고 나쁜 법을 없앨 그날까지 남 몰래 봉양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혹 나라에서 알게 되어 처벌을 당하게 되더라도 아버지를 잔인하게 생매장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믿고 그는 아버지를 계속 모신다

여기서 신하는 고려장은 분명히 나쁜 제도라고 생각한다. 결국 신하는 우연한 대국천지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적인 위신이 걸린 상황에서 폭로한다. 만약 신하가 ‘고려장’을 따랐을 경우 국가적인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상황이 자신의 행위 즉 자신의 불복종이 옳았음을 밝힐 기회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임금은 그 답을 낸 사람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신하는 잠시 주저하다가 ‘마루 아래 숨겨서 모시고 온 아버지’라고 밝힌다. 지금이 ‘고려장’이라는 법을 없앨 기회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의 불복종을 드러내기로 한 것이다.

일국의 신하가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고, 곧 그것은 나라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금은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법이라 하여 '고려장'을 없앤다는 선포를 한다, 또한 이는 신하의 아버지가 '고려장' 당하고 없었다면 지혜를 낼 수 없었을 것이고, 나아가 나이 많은 분이 젊은이보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을 임금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래동화에 나타난 도덕적 상황은 그에 대처하는 도덕적 사고방법을 촉발하고 연마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즉 전래동화를 읽고 있는 아동은 등장인물이 도덕적 상황에 처하여 사고하고 행위하는 과정 전반을 따라 읽고 그러한 윤리적 사고와 행위를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그리고 아동은 그 내용을 자기 입장에서 반성해 봄으로써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앞으로 아동 자신이 그와 같은 도덕적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이며 공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래동화의 도입은 선조들의 도덕적 사고의 핵심으로서 아동에게도 도덕적 사고를 촉발하게 하는 훌륭한 도덕교육의 매체인 것이다.

Ⅲ. 제주 전래동화 학습자료의 개발

1. 제주 전래동화의 개관

1) 제주 전래동화의 개념과 성격

제주 전래동화는 언어를 통한 예술형태의 표출이다. 언어로 표출되는 예술로는 구전을 통한 표현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문자를 통한 표현방법이 있다. 문자로 기술된 것으로는 문헌에 기술된 기록물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삼국사기와 같은 역사적 기록물이 있을 수 있고 인물의 전기를 기록한 傳文學들이 포함되며 오늘날의 소설까지 발전해 왔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인 고대에는 당연히 구전을 통한 예술양식이 발달하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러한 구전을 통한 언어양식을 설화라 칭하고 있다. 전래동화는 문자가 아닌 언어로 전승되는 문학 양식의 하나이므로 구비문학 범주에 속한다. 구비문학은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와의 사이에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학양식이므로 구전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이가 이루어진다

제주도의 전래동화를 논의함에 있어 구전자료는 찾을 수 있지만 문헌자료를 찾기는 무척 어렵다. 삼성신화처럼 일부 자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연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전래동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출간한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같은 자료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서 펴낸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펴낸 제주설화집성과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 외로 엄밀하게는 자료로서의 한계가 있지만 동화작가들이

떠난 작품들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존에 구연된 한국구비문학대계, 제주설화집성과 같은 자료를 대상으로 그 내용은 크게 바꾸지 않고 아동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준어로 바꾸는 등 일부 요소만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제주도 전래동화는 신화·전설·민담 속에 많이 들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화 속에 많이 있다. 전래동화 중에는 처음부터 어린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도 있고, 동화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어른과 함께 어린이도 즐기는 이야기도 있다.

제주도는 앞서 밝힌 대로 문헌자료가 일천한 지역이다 반면에 구비자료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다. 그 중의 하나가 신화이다. 심방이라는 특수한 직능자가 신성한 장소에서 행하는 의례에서 부르는 신화는 제주도민들에게 문학적 상상력을 길러주었다. 원시종합예술 형태가 굿으로 남아있음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굿은 고대 제천의례 양식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남녀가 같이 모여 음주가무한다는 고대 의례 형태는 제주도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무당이 중심이 되어 신을 불러들여 신앙민의 기원을 행하는 의례를 통해 제주도민은 신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 이때 노래 불러지는 서사문학이 신화이다.

이러한 신화는 여성중심으로 행해져 그들의 가슴 속에 무한한 상상력을 심어주었다. 그 여성의 품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할머니, 어머니의 가슴속 이야기들을 먹고, 상상력을 키워왔다. 아이들이 들은 이야기들은 심방이 구연하는 신화와는 달리 신앙의식이 결여된 것이었으므로 이것은 민담으로 남아있거나 일부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신화는 심방들이 하는 이야기 곧 '심방말미'라 할 수 있고, 전설은 '고담', '전설' 등으로 칭해진다. 민담이라는 명칭은 학술용어일 뿐이지 민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민간에서는 오히려 '옛말'로 통한다. 제주 전래동화는 전래동화의 명칭에 '제주'라는 낱말을 첨가한 것으로서 다른 지방의 동화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화되었다.⁵⁴⁾ 대부분의 동화가

그러하듯이 제주 전래동화도 어린이들에게 전승시켜도 좋은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따라서 제주 전래동화는 제주에서 전승되는 이야기 중 동심을 바탕으로 꾸며진 이야기, 즉 제주 선인들의 공동 참여에 의해서 같고 다듬어진 것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도덕적 성격과 함께 제주인의 가치와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다.

제주 전래동화는 그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제주 전래동화 연구를 통하여 제주 전래동화의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 전래동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전래동화 160여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① 생성 · 유래 · 원인 · 이유
- ② 남을 해치면 저도 해를 입는다
- ③ 허욕을 부리지 말라.
- ④ 지성감천
- ⑤ 효도하라.
- ⑥ 은혜를 배플라
- ⑦ 보은
- ⑧ 남을 깔보지 말라, 남의 인권을 존중하라.
- ⑨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를 통해 보면 제주도의 전래동화는 인간의 일반심성과 관련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제주민들이 새롭게 변형시켜 전승시켜 오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설문대할망 전설에서처럼 대륙과의 연결을 희망하는 것이 섬이라는 지정학적 현상 속에서의 한계를 드러내는가 하면, 한라산을 만들고 오름을 만들었다는 섬의 형성 유래를 설명하기도 한다. 99계곡 전설처럼 100을 채우지 못하여 큰 인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은 제주인이 탐라국이라는 독자성보다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54) 박재형(1998), 앞의 글, p. 2

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 콩쥐팥쥐와 같은 설화처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제주도에도 있다는 것은 제주도의 설화 연구가 세계적 연구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더구나 제주도 곳에서 불려지는 12분풀이는 한국문학의 원류를 추적하는 중요한 자료로 연구되고 있어 제주 전래동화의 가치를 엿보게도 한다.

다음은 제주 전래동화의 형식을 살펴본다. 형식의 중요성은 내용 못지않게 전래동화의 전승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들이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은 내용에도 있지만 그 내용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전달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한 짜임새가 곧 형식이다. 제주 전래동화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서두와 결말의 형식이다. 이는 ① 일상적인 이야기와 구별되는 작품세계의 독자적인 소우주를 확립할 수 있게 해 주고, ② 이야기가 서사적 과거시제로 전개됨을 명백히 하고, 끝나고 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로 되돌아오게 해 주며, ③ 이야기가 허구임을 나타내고, 결말에서는 허구적인 그럴듯함을 강조하며, ④ 흥미를 돋워준다

둘째는 대립과 반복의 형식이다. 선악의 대립으로 이는 흥미를 북돋우며, 갈등을 조장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동화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셋째는 진행의 형식이다. 이는 시간의 진행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제주 전래동화라도 여러 개의 제주 전래동화를 결합하여 이야기를 진행시킴으로써 흥미를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제주 전래동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인물, 사건, 배경을 들 수 있다. 서사문학의 주요 요소인 이것들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전래동화를 구성할 수 없다.

인물에는 사람 말고도 동물이나 초자연물이 많이 등장한다. 등장인물의 대다수는 지혜로운 자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주류를 이룬다. 등장인물의 가족적인 위치를 보면, 성인인 경우에는 호주로 나타나는

예가 가장 많고, 아동인 경우에는 어머니만 모시고 살거나, 아버지만 모시고 사는 결손가정의 어린이가 많다.

제주 전래동화의 주인공은 일상적인 평범한 인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앞에 닥친 고난이나 불행에 좌절하지 않고, 이들과 싸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행복을 얻는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 전래동화는 좋은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

제주 전래동화의 사건은 아동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지 않고, 성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제주 전래동화가 설화의 분신으로, 아동들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인과 공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전래동화의 제작자들이 성인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제주 전래동화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빈도를 그 종류별로 조사해 보니 대체로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 ① 이상하다, 놀랍다, 뜻밖이다.
- ② 기쁘다, 만족, 소원성취
- ③ 희망, 회구, 소망
- ④ 슬프다, 한탄, 걱정
- ⑤ 골탕먹이다, 끌리다, 해치다.
- ⑥ 기지, 계약
- ⑦ 두렵다, 소극적이다, 겁이 나다
- ⑧ 깨우쳐 주다, 가르쳐 주다,
- ⑨神通력, 위력, 마력

제주 전래동화의 시간적 배경은 구체적인 시대가 나타나지 않고, 막연하게 ‘옛날’로 표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신화적인 것은 ‘태초’로, 전설적인 것은 ‘신라’ 때, ‘고려’ 때, ‘조선시대’로 왕조 명이 나타나거나,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2) 제주 전래동화의 내용 체계

제주 전래동화는 전체적으로 162편이 여러 책에 중복 수록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제주 전래동화가 수록되어 있는 자료와 그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 전래동화집인 「제주도이야기⁵⁵⁾ 1·2」에는 이 세상과 소별왕, 한라산 신이 된 소국성, 무당의 조상이야기, 사만이, 자청비, 팔용당과 팔사당, 아흔아홉골, 산방산 이야기, 가릿뱅디, 절부암, 유반석과 무반석, 쇠섬과 뱀, 진나라 서벌과 정방폭포, 처제연과 효자, 천지연, 뱀을 죽여없앤 서련, 의리있는 개무덤, 소잡아 얻은 뿔자리, 장수무덤, 광정당과 이목사, 고종달이, 감목관 김씨, 배 큰 정서방, 인색한 좌수, 오찰방, 아기 장수의 죽음, 날개 돋은 아기의 죽음, 해적울 무찌른 장사 한씨, 장수가 못된 장사, 홍리고대감, 설문대 할망, 이좌수의 눈, 고성목과 산방덕, 구슬을 먹은 아이에는 사만이, 자청비, 가문장아기, 남선비, 허웅아기, 용머리 바위, 아이업개(군산), 설문대 할망, 산방덕이, 구슬을 먹은 아이, 여우잡은 이순풍, 야구봉이와 두루봉이, 산신령의 딸(왕지네), 모관양반, 용감한 병동이, 도깨비의 은방맹이, 이상한 나라의 생명수가 있다.

「힘센 종 막산이」⁵⁶⁾에는, 한라산이 신이 된 소국성, 아흔아홉골, 절부암, 소잡아 얻은 뿔자리, 오찰방, 설문대 할망, 힘센 종 막산이, 힘센 남매, 장원금제한 어부의 아들, 여우잡은 소금장수, 나무꾼과 산삼, 용감한 병동이, 도깨비의 은방맹이가 있다.

「알동네 웃동네」에는 이 세상과 고별왕, 한라산의 신이 된 소국성, 삼성신화(삼성혈), 보목리 조록이당, 아흔아홉골, 오백장군, 비양도, 가릿뱅디, 절부암, 수월봉과 늑고물, 산방산과 방철스님, 외돌괴와 범섬, 이여도, 관덕정, 제주의 고려장, 유반석 무반석, 쇠섬과 뱀, 진나라 서벌과 정방폭포, 천

55) 현길언(1984), 「제주도 이야기」 1·2, 창작과 비평사

56) 아동문학협회(1990), 「힘센 막산이」, 영주문학사.

제연과 효자, 천지연, 열녀바위, 뱀을 죽여 없앤 서련, 애기엿개 바위, 용궁 올래와 칼선도리, 여우물, 용궁의 세 왕자와 매오름, 용머리 바위 지장샘, 용연과 고대정, 방선문과 선비, 개무덤(성읍), 여우혈, 팽정당과 이목사, 배 큰 정서방, 고전적, 신촌 효부, 설문대 할망, 설문대 하르방, 괴범천총, 거짓말 잘 하는 변인태, 장사 구운문, 채뚝뚝이, 산호 해녀, 기지가 뛰어난 현유학 훈장, 힘과 기예가 뛰어난 강씨, 왕비의 병을 고친 좌조의, 한순이 달순이 신선달, 고삭부 장사, 이상한 나라의 생명수, 저승에 다녀온 강씨가 있다.

「민족 전래 동화 6·8·9」에는, 오돌또기, 이 세상과 소별왕, 한라산이 신이 된 소국성, 삼승할망, 무당의 조상이야기, 사만이, 자청비, 남선비, 허옹아기, 삼성신화(삼성혈), 세화본향당신, 호근본향당신, 사계큰물당신, 에촌, 보목본향당신, 상창 하르방당신, 중문본향당신, 광양당신, 영동할망, 보목리 조륙이당, 할망당, 구슬할망, 아흔아홉골, 오백장군, 산방산 이야기, 비양도, 소죽은 못, 절부암, 수월봉과 녹고물, 산방산과 방철스님, 외돌괴와 범섬, 이여도, 관덕정, 제주의 고려장, 늘우시 동산, 파랑도, 탑지, 신선의 놀이터 백록담, 유반석 무반석, 섯섬과 뱀, 진나라 서벌과 정방폭포, 천제연과 효자, 천지연, 뱀을 죽여 없앤 서련, 애기엿개 바위, 용두암, 용두암, 용연과 고대정, 방선문과 선비, 신도 충견 무덤, 변씨 입도 선묘, 여우혈, 은호골, 팽정당과 이목사, 고종달이, 감목관 김씨, 배 큰 정서방, 고전적, 인색한 죄수, 고선 홍효자, 신촌효부, 오찰방, 아기장수의 죽음, 날개돋은 박씨, 날개돋은 아기의 죽음, 김통정 장군, 김명현 참판, 홍리 고대각, 설문대 할망, 이좌수의 눈, 산방덕이, 거짓말 잘 하는 변인태, 힘센 종 막산이, 구슬을 먹는 아이, 장사 구운문, 해녀와 신하, 채뚝뚝이, 고부윤, 열녀 김천덕, 계참 박규안, 문국성과 명인들, 양선달, 기지가 뛰어난 현유학 훈장, 힘과 기예가 뛰어난 강씨, 효자인 서자, 의녀 김만덕, 귀달린 뱀과 안판관, 오돌또기, 백중제, 앓은뱅이와 황금, 여우잡은 이순풍, 야구봉이와 두루봉이, 산신령이 말(왕지네), 모관양반, 장원급제한 어부의 아들, 나뭇꾼과 산삼, 도깨비의

은방맹이, 까마귀 모르는 제사, 꼬부랑 나팔, 머리자른 효부, 가짜 신랑 이야기, 정승과 정시, 저승할망, 무지개, 정월명절, 도채비 형채, 생불 도채비, 더벅머리 도채비, 갑돌이에 인생이 있다.

「힘센 할망과 피많은 하르방」에는 삼성신화(삼성혈), 개무덤(성읍), 여우잡은 개, 바당에서 건진 돌하르방, 김통정 장군, 힘센 종 막산이, 들음돌과 할망, 용왕을 욕한 강선장, 기지가 뛰어난 현유학 훈장, 고삭불 장사, 힘센할망과 피많은 하르방, 부래각, 도적떼를 살린 고행방, 의로운 당팃당장, 사라진 도깨비, 달아난 도깨비, 도깨비불을 쫓는 거옥대, 도깨비를 무서워하지 않은 소, 다시 살아난 아기, 참빛으로 변함 도깨비, 도깨비를 잘 모시면, 노루 때린 막대기가 있다.

「오돌또기」에는, 한라산에 신이 된 소국성, 사만이, 자청비, 삼성신화(삼성혈), 유반석과 무반석, 천제연과 효자, 뱀을 죽여없앤 서련, 지장샘, 장수무덤, 괴이리가 환동리가 된 까닭, 고종달이, 감목관 김씨, 인색한 죄수, 고성홍 효자, 아기장수의 죽음, 김통정 장군, 이좌수의 눈, 산방덕이, 거짓말 잘하는, 변인태, 대정고을 장사들, 논하니, 구슬을 먹는 아이, 매고 할망, 문곡성과 명인들, 양선달, 힘센할망과 피많은 하르방, 송씨댁 장사 며느리, 부래각이 있다.

내용별 분류로는 권선징악을 내용으로 한 제주 전래동화로는 이 세상과 소별왕, 한라산 신이 된 소국성, 삼승할망, 초공과 유씨 부인, 사만이, 자청비, 가문장아기, 남선비, 허웅아기, 삼성혈, 세화 본향당, 광양당신, 영등할망, 할망당, 있으며 충성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는 구슬할망등, 허욕을 금지시키는 내용으로는 팔용당과 팔사당, 백록담, 방선문과 선비 등이 있다

인간존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수월봉과 늑고물, 절부암, 천제연과 효자, 구슬할망, 외돌괴와 범섬, 천제연, 고성 홍효자, 신촌 김택효부, 열녀 김천덕, 시흥리 현씨남매, 어진 고행방, 야구봉이와 두루봉이, 왕지네, 호랑이 잡은 열부, 까마귀 모르는 제사, 머리 잘라 시부모 생일상 차린 효부등이 있고, 생명존중에는 신도 충견 무덤, 감목과 김택, 오찰방, 명의 좌

조의, 한순이 달순이 신선달, 저승할망등이 있는 데 특히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산호해녀, 오서자, 난미 김씨, 백중제, 여우 잡은 소금장수, 은혜 깊은 노루, 돼지로 태어난 어머니등을 들 수 있다.

2. 제주 전래동화의 학습자료

1) 자료 선정의 기준

(1) 지도의 용이성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춘 전래동화가 교과 지도에 용이할 것이다.

첫째, 도덕 규범이나 예절에 대한 교육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둘째, 아동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도덕 문제들을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지어 도덕적 사고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 아동들의 가치탐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넷째, 감화, 설득방법, 탐구식 지도 방법, 실천·체험 중심의 다양한 지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다섯째, 교과와 관련하여 아동들의 도덕규범을 내면화하고, 도덕적 실천 성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2) 도덕성 발달 수준에의 적합성

이 시기는 저학년 바른 생활과에서 습득한 기본 예절과 도덕 규범을 보다 확대하여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며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길러 자율적인 도덕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4학년 아동의 발달수준에 알맞도록 하기 위해 제주 전래동화 선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도덕성 발달수준을 반영한 내용이어야 한다.

도덕 규범의 의미나 근거를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초

보적인 단계이므로 도덕 규범을 스스로 내면화하여 도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는 도덕적 발달 수준으로 볼 때, '인습 수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학년 단계에서 습득한 기본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 규범의 의미나 근거를 이해하고, 도덕규범의 내면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⁵⁷⁾ 왜냐하면 아동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예절이나 도덕 규범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른생활과에서 배운 기본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도덕적 규범의 내면화를 다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둘째, 4학년 아동이 도달해야 할 도덕과의 목표와 그 하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면 제주 전래동화가 갖추어야 할 내용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 생활 영역으로는 건강, 자주, 약속, 시간 절약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가정·이웃·학교생활에서 아동들이 가족, 친구, 학교생활 등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까운 인간관계의 올바른 도리를 배울 수 있는 예절, 역지사지, 학교에 대한 긍지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③ 사회 생활 영역에서는 아동들이 사회적인 도덕 문제를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규범들을 내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④ 국가·민족 생활 영역에서는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애의 의지를 다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특히 4학년 아동에게는 가정·이웃·학교생활에서 역지사지를 배우는 것이 도덕의 시작이다. 즉 나의 입장을 다른 사람의 입장과 바꾸어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 것이며,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를 고려해 볼 수 있거나, 곤경에 처한

57) 교육부(1993),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p 64.

사람의 딱한 처지를 염려하는 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공감까지도 도울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것에 공감하게 되면, 각자가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당위적 판단이나 실천방향이 돌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과 지도 요소와의 관련성

초등 도덕과 지도 요소⁵⁸⁾는 다음과 같다.

개인 생활 영역에서는 지도 요소로는 생명존중, 자주 성실, 절제, 실천의 지도로 구분되고 그 구체적 지도 요소로는 건강한 생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 약속을 지키는 태도, 시간을 지키고 아껴 쓰는 생활이며 가정·이웃·학교 생활의 지도 요소로는 가정예절, 학교 예절, 향토애, 관용, 경애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 지도 요소로는 친족간의 예절, 학교에 대한 자랑과 긍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태도이다. 사회 생활영역의 지도 요소로는 공공질서, 협동, 공익, 공정, 민주적 절차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 지도 요소로는 다른 사람의 이익 존중, 건전한 경쟁과 협동, 환경 보호와 공동체의 삶, 정의감과 용기, 회의 할 때의 지켜야 할 태도이다. 이러한 지도 요소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어야 교육효과가 높을 것이다.

2) 자료화의 절차

제주 전래동화의 학습자료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

(1) 교육과정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인 4학년 도덕과의 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도덕과는 4개의 영역으로 구분 되어있다. 각 영역은 개인 생활, 가정·이웃생활·학교 생활, 사회 생활, 국가·민족 생활의 4영역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주 전래동화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3가지 영역으로 한정한다. 그 구체적 생활 영역별 학년 목표⁵⁹⁾를 제시하면

58)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p 20

첫째, 개인생활 영역에는 개인의 도덕적 성장에 기본이 되는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 의지를 가지게 하며 4 개의 제재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가정·이웃·학교 생활 영역에서는 가정·이웃·학교 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절과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제재 수는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사회 생활 영역에서는 민주 시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중 도덕을 준수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하며 제재 수는 4개이다.

이를 다시 제재별로 분석 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개인 생활 영역인 단원 1. 자주적인 생활에서의 교육 과정 지도 요소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자주)이며, 구체적 지도 요소는 자주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친구 사이의 생활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모범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노력과 실천을 통해 연습해 나아가기,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 단원 2. 소중한 약속에서의 교육 과정지도 요소는 약속을 지키는 태도(성실)이며, 주요 지도 내용으로는 갈등상황을 통하여 약속을 신중히 해야함을 깨닫기, 갈등 상황을 통하여 자신과의 약속의 중요함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마음 기르기, 약속의 종류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기, 작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기 등이다.

가정·이웃·학교 생활 영역의 단원 3. 친족간의 예절에서의 교육과정 지도 요소는 친족간의 예절(가정에서의 예절)이며, 주요 지도 내용은 화목한 가족의 즐거움을 알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 친족간의 호칭과 존수 알기, 가족과 친족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족이나 친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 알기, 가족신문 만들기 등이다. 단원 4. 용서하는 마음에서의

59) 교육부(1996), 앞의 책, pp.49~51

교육과정 지도 요소로는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관용)이며 그 주요 지도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일화를 통하여 어떤 경우에 용서하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방법 알기, 용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마음 기르기, 친구 사이에서 용서하는 방법 알고 실천하기 등이다.

사회 생활 영역의 단원 5.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의 교육과정 지도 요소로는 다른 사람의 이익 존중(공공질서)이며 주요 내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의 나쁜 점 알기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마음씨와 태도의 좋은 점 알기,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낸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해야 할 일 알고 실천하기, 남을 생각해 주는 마음의 좋은 점 알고 실천하기 등이다. 단원 6. 서로 돕는 생활에서의 교육과정 지도 요소로는 진정한 경쟁의 의미 알기, 협동의 좋은 점 알고 협동하려는 태도 갖기, 경쟁과 협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경쟁과 협동에 조화를 위해 노력하기, 경쟁과 협동이 조화된 모습을 알고 본받기이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개인 생활 영역은 단원 1. 건강한 생활과 단원 2. 소중한 시간이며 단원 1. 건강한 생활의 교육과정 지도 요소는 건강한 생활(생명 존중)이다 주요 내용은 도훈이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몸이 허약해지는 이유와 그 문제점 이해하기 등이다. 단원 2. 소중한 시간의 교육과정 지도 요소는 시간을 지키고 아껴 쓰는 생활이며 주요 내용 소년과 주인공의 옛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의 소중함 깨닫기 등이다.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에서는 3. 우리학교와 4. 다른 사람의 처지이며 3. 우리학교의 교육과정 지도 요소는 학교에 대한 자랑과 긍지이며 주요 지도 내용은 '제2의 가정'으로서의 학교 생활 알아보기이다. 4.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교육과정 지도 요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해 주는 마음의 중요성 알기이다.

사회생활 영역은 5. 용기 있는 생활과 6. 바른 회의 태도가 포함되며, 단원 5. 교육과정 지도 요소는 공정이며 영호와 민호의 행동을 통해 용기 있

는 행동의 사례를 알기이다. 단원 6. 바른 회의 태도에서 교육과정 지도 요소는 타인 존중이며 주요 지도 내용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 갖기이다.

(2) 제주 전래동화의 분석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제주 전래동화는 「알동네 웃동네」⁶⁰⁾, 「제주도 전설」⁶¹⁾, 「제주도 이야기 1·2」⁶²⁾ 등에 나와 있는 62종이다.

이를 4학년 도덕과의 지도요소와 관련하여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요소 '타인 존중'과 관련된 제주 전래동화는 천지연, 강별장, 고성목과 산방덕, 송시댁며느리, 산호해녀, 의녀 김만덕, 은혜값은 노루, 등 7편이며 지도요소 가정예절과 관련된 제주 전래동화는 수월봉과 녹고물, 천제연과 효자, 고성홍, 신춘효부, 이상한 나라의 생명수, 수월봉과 녹고물, 머리 잘라 시부모 생일상 차린 효부, 오백장군 등 8편이다.

경애를 지도요소로 한 제주 전래동화는 홍노 오서자를 비롯하여 구슬할망과 고성 홍효자등 3편이 있으며, 성실을 지도 요소로 한 제주 전래동화는 광양당⁶³⁾을 비롯한 가문장 아기, 허웅아기, 남선비, 사만이, 삼승할망, 광양당신, 이상한 나라의 생명수, 저승할망, 소별왕, 등 10편이 있다.

타인 존중을 지도요소로 하는 제주 전래동화 자료는 강별장을 비롯한 구슬할망, 외돌괴와 범섬, 천제연, 고성 홍효자, 시흥리 현씨남매, 어진 고흥방, 야구봉이와 두루봉이, 왕지네, 호랑이 잡은 열부, 까마귀 모르는 제사, 고성목과 산방덕, 송씨댁 며느리 등 12편이 있다. 또한 생명존중을 지도요소로 하는 제주 전래동화에는 기전목사, 신도 충견 무덤, 감목과 김댁, 오찰방, 명의 좌조의, 한순이 달순이 신선달, 저승할망, 돼지로 태어난 어머니 등이 있는 데 특히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산호해녀, 오서자, 난미김씨, 백중제, 여우 잡은 소금장수, 은혜 값은 노루, 돼지로 태어난 어머니,

60) 제주도 아동문학협회(1990), 앞의 책

61) 현용준(1976), 앞의 책 .

62) 현길언(1984), 앞의 책 .

63) 현길언(1984), 「제주도 이야기」, 창작과 비평사 .

기전목사 등 15편을 들 수 있다. 그 외 공정을 지도요소로 하는 제주 전래 동화는 영천 이 목사, 고전적, 등 2편이 있으며, 협동을 지도요소로 하는 제주 전래동화에는 유반석과 무반석, 봉사와 앓은 뱀이 등 2편이 있으며, 실천의지를 지도요소로 하는 제주 전래동화는 보재기, 바계곤, 명의 좌조의, 여우물 등 4편이 있다.

관용을 지도요소로 하는 제주 전래동화에는 시흥리 현씨 남매이며 '자주'와 관련된 제주 전래동화는 용감한 병동이, 죽었다 산사람 등 2편이 있다.

2) 제주 전래 동화 학습자료 목록

4학년 1-2학기 교과서 예화를 중심으로 선정된 제주 전래동화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⁶⁴⁾

<표 1> 1학기 제재 관련 제주 전래동화 선정표

교 과		제주 전래동화			
관련 제재	소 제 재	지도요소	제 목	도덕적 행동	출 처
1 자주적인 생활	·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	자주	죽었다 산사람	역경을 딛고 꾸준히 스스로 행하기	제주도 전 설
2 소중한 약속	· 약속은 왜 지켜야 할까요?	성실	월계 진 좌수	좌진수의 성실함	”
3. 친족간의 예절	·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진 사람들	가정예절	오백장군	주인공이 아들을 죽인 이유	알동네 웃동네
4 용서하는 마음	· 태수의 눈물	관용	시흥리의 현씨 남매	형제애 쌓기	제주도 전 설
5.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 자기 생각만 하는 철호	타인존중	유반석과 무반석	양보하는 마음 갖기	제주도 이야기
6 서로 돕는 생활	· 명호와 진영	협동	봉사와 앓은 뱀이	자기의 장점과 단점 알기	제주도 전 설

64)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으로 제시한다

<표 2> 2학기 제재 관련 제주 전래동화 선정표

교 과			제주 전래동화		
관련 제재	소 제 재	지도 요소	제 목	도덕적 행동	출 처
1. 건강한 생활	· 아침 조회 때에 생긴 일	생명 존중	기전목사	늙으신 부모를 섬기는 마음	제주도 전 설
2. 소중한 시간	· 가장 소중한 선물	실천 의지	박계곤	박계곤의 행동	"
3. 우리학교	· 우리들의 학교 생활	학교 예절	며느리의 말대꾸	예절의 생활화 (말조심하기)	알동네 웃동네
4. 다른 사람의 처지	·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마음	경애	홍노 오서자	따뜻한 마음 (차별하지 않기)	제주도 전 설
5. 용기 있는 생활	· 영호의 용기	공정	영천 이목사	여러 사람을 위한 일	제주도 이야기
6. 바른 회의 태도	·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	타인 존중	강별장	아끼고 돌봐 주는 마음	제주도 전 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V. 제주 전래동화 자료를 활용한 학습지도 방안

1. 도덕과 교수-학습에 의한 지도 방안

1) 도덕과의 가치 태도 내면화의 단계별 지도 방안

제주 전래동화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거나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래동화의 이해와 감상을 통하여 체험의 확대, 정서의 순화를 꾀하며, 아동들이 보다 넓고 깊이가 있는 도덕적 인품을 형성해 나가고, 이와 일관되게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아동들의 전반적인 도덕적 삶이 향상될 수 있게 하는 도덕성을 기르는 데 있다. 도덕교육에서 도덕성은 인지, 정의, 행동적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인지적 영역에서는 도덕적 인식능력, 도덕적 추론능력, 도덕적 의사 결정 능력 등의 요소를 정의적 능력에서는 도덕적 정서, 도덕적 열망, 감정이입 등의 요소를, 행동적 영역에서는 도덕적 행위 수행 능력, 의지, 습관 등의 함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⁶⁵⁾ 그러므로 전래동화 교육은 인지적 수준에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학습된다.

가치 태도가 내면화되는 과정에 대하여 블룸(Bloom)은 교육목표 분류에서 감수(感受), 반응(反應), 가치관(價値觀), 조직화(組織化), 인격화(性格化)의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5단계는 도덕교육에 있어서 일반적인 구분이다. 물론 전래동화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거나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래동화의 작품을 통하여 체험의 확대, 정서의 순화를 꾀하고, 상상력·창조력·통찰력·심미성·도덕성을 기르며,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⁶⁶⁾ 그러므로 전래동화 교육은 흥미, 태도, 감상, 가

65) 서강식(1999), 「도덕·윤리과 수업모형」, 양서원, p. 16

66) 최운식·김기창(1998), 앞의 책, p. 125

치, 정서적 반응 경향 등을 중요시하는 정의교육(情意教育)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blooms의 5단계 목표를 간추리고, 이를 제주 전래동화인 「김녕사굴」의 제재와 관련하여 지도 항목을 추출함과 동시에 그 지도 방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감수

이 단계는 전래동화를 대하는 첫 단계가 된다. 이 단계는 학습하는 아동이 전래동화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것을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받아들이기 위한 의식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아동은 전래동화의 내용을 감수하기 위한 의식을 지녀야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주의 집중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감수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한마디로 작품에 대한 윤곽을 알게 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자를 작품으로 근접시키는 안내의 과정이라 하겠다. 이것이 내면화의 첫출발이다.⁶⁷⁾

이 단계에서 학습이 되어야 할 항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전에 배운 전래동화나 교과서 외에서 읽거나 들은 경험 등을 발표해 보게 한다

○전래동화를 구연해 본 경험이나, 학예회나 라디오·TV 등에서 전래동화를 들은 경험을 발표하게 한다. 또한 경험에 의한 느낌을 발표하게 한다.

○전래동화를 읽고 전체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 알아본다.

이와 같이 감수단계는 전래동화의 내용에 대한 윤곽을 알게 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하게 하여 아동을 전래동화로 근접시키는 안내의 단계로서 전래동화의 이해와 감상에 지장이 될 것을 제거해 주는 학습단계라고 하겠다.

(2) 반응

이 단계는 전래동화 작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감수의 단계를 넘어서서 전래동화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참여활동의 단계이다. 이 때 가장 중

67) 정원식(1973), 「정의의 교육」, 배영사, pp. 14~15.

요한 것은 자기 만족을 얻는 일이다.⁶⁸⁾ 즉 전래동화를 읽거나 읽은 후에 체험하는 반응은 인지적(認知的), 정의적(正義的), 심미적(審美的)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 세 측면의 반응은 분리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작용하여 통합된 체험을 이루는 것이다. 이 세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⁹⁾

○ 인지적 반응 단계에서는 단순한 이해의 수준과 분석의 수준이 있다. 단순한 이해의 수준이란 일반적인 전래동화 이해의 수준을 말한다. 이 수준에서는 아동이 전래동화를 읽으면서 내용 속의 언어가 뜻하는 대상이나 사건을 머리에 그리게 되는 수준으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수준의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수준에서도 작자의 의도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 분석적 수준의 인지적 반응은 장면이 인물의 성격이나 줄거리 전개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알아내는 수준이며, 주인공처럼 목표한 일을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해야 한다는 의도 등을 이해하게 한다.

○ 정서적 반응 단계는 전래동화 속의 어떤 인물에 대하여 감탄, 동정, 존경 등의 정서적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혐오, 멸시, 증오 등의 정서적 반응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공포, 불안, 쾌감, 걱정 등의 정서를 체험할 수도 있다. 어떤 장면에서는 고요함, 평화로움, 아늑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우울함, 쓸쓸함, 무시무시함 등의 정서적 체험을 하기도 한다.

○ 심미적 반응 단계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 단계에서 알게 된 내용을 적절하게 연관지어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바르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라 하겠다. 즉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행복한 삶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알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얻는 감동 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만일 아동들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

68) 정원식, 앞의 책, p 24

69) 최운식·김기창, 앞의 책, p 127. 재인용

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가치관에 대하여 가치 갈등을 일으키는 단계라 하겠다. 제주 전래동화 「김녕뱀굴」의 제재를 위에서 설명한 세 단계와 관련지어 지도 항목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적 반응 단계에서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 전파·전송시켜 온 제주민의 의도나 태도 등을 파악하고 하게 한다. 즉 이야기의 주인공 서판관처럼 하고자 하는 일에는 용기를 가지고 임한다

-정서적 반응 단계에서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여 확인하는 단계이다. 즉 이 이야기에서 주요 요소인 김녕 뱀의 행위와 주인공 서판관의 행동 등에 대한 느낌이나 체험에 대하여 확인하는 단계이다.

-심미적 반응 단계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 단계에서 알게 된 내용을 적절하게 연관지어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확인하는 단계이다. 즉 이 이야기에서 무당과 같은 천민의 딸이 이유 없이 희생되어야 하는 부당성을 알고 서판관의 희생정신에 동감을 가지면서 얻은 감동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만일 자신이 이미 갖고 있던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면, 기존의 가치관에 대하여 갈등을 겪는 반응 단계라 하겠다.

이 단계의 지도 방법으로는 ① 제주 전래동화를 들려주고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리게 한다. ②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한다. 즉 내가 주인공이라면, 이 이야기에서 배운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가치화

이 단계는 전래동화 작품의 이해 활동에 참여하여 얻은 결과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어떤 특성이 한 개인에게 가치화 될 때 작용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요한 것은 그것이 아동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가치와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래동화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아동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아동이 보다 나은 가치관을 갖도록 하여, 그것이 거의 확신의 바탕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김녕 뱀굴」의 경우, 이 단계에서 지도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즉 처녀를 잡아 잡아먹는 뱀을 물리친 서판관에 대한 특성을 알아본다.

-그리고 주인공인 서판관의 가치와 특성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한다.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한다 즉 오늘날의 사고로 보면 뱀이 처녀를 잡아먹고, 음식을 다 먹어치우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든가, 서판관이 뱀을 물리치는 과정이 허황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사고로 보면 꼭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단계의 지도 방법은 ①내가 주인공이 되어 말하여 보게 한다. ②독서 감상문을 쓰게 한다. ③특정 인물을 정해 놓고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

(4) 조직화

아동은 여러 가지 가치관을 내면화해 감에 따라서, 그는 하나 이상의 가치가 관련되는 사태에 당면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은 여러 가치를 하나의 체계로 조직하고,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얻은 가치를 체계화·개념화하여 실생활의 밑받침이 되도록 보다 체계화하기도 한다.

「김녕 뱀굴」의 경우, 이 단계에서 지도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주 전래동화 「김녕 뱀굴」에서 서판관이 만약 뱀을 죽이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 지 말해 본다.

-전래동화와 그 내용에 내재된 전통적 제주인의 사고와 가치관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한다.

이 단계의 지도 방법에는 ① 제일 재미있는 부분을 흉내 내게 하는 입체 낭독하기 ②앞, 뒷부분이 생략된 이야기나 여운이 남은 채로 끝난 이야기

를 가지고 다음에 펼쳐질 사건이나 줄거리를 완성시키는 미완성 이야기를 완성시키기 등이 있다

(5) 인격화

이 단계는 내면화 과정의 최종적인 단계이다. 어떤 정의적 특성이 내면화 과정에서 이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아동의 여러 행동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으로 존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단계에 도달하게 된 정의적 특성은 오랫동안 그 개인에 머무르면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와 같은 성격화된 특성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 단계는 전래동화의 내용에서 얻어 조직화된 가치가 아동의 행동을 영향을 주어 인격화되는, 즉 도덕과 교육의 과제인 도덕성을 함양하는 단계인 것이다.⁷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서판관)의 훌륭한 점을 본받고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이 단계의 지도 방법으로는 ①전반부의 제주 전래동화를 들려주고 결말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완성형 지도법이나 ②내가 주인공이 되어 역할놀이를 해 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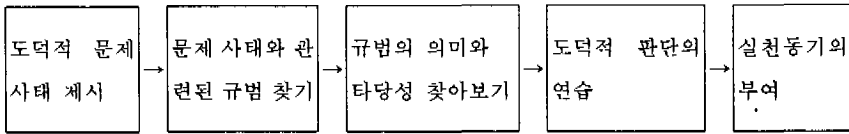
다음으로, 제주 전래동화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모형을 도덕과 교수-학습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전래동화를 이용한 수업은 도덕적 논의의 중요성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으며 학년마다 강조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도덕과 교수-학습의 일반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학습을 전개할 수 있다.

70) 교육부(1996), 「초등학교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p 6

2) 도덕과의 일반 수업 모형의 단계 별 지도 방안

<도 1> 수업과정 일반 모형



위의 일반적인 수업모형을 전래동화의 학습에 적용할 수 있으며, 논의의 전개를 위해 위의 단계를 간략히 부연 설명하겠다.⁷¹⁾

(1) 도덕적 문제사태 제시

전래동화 수업의 도입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전래동화의 대부분은 도덕적 행동이 나타난 생활장면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도덕적 문제 사태의 제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사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문제사태의 내용이 아동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규범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 문제 사태로 제시되는 내용에서 아동들이 도덕적 규범을 명백히 식별하지 못한다면 그 만큼 수업은 초점이 흐려지게 마련이다.

둘째, 저학년인 경우 전래동화의 내용에서 하나의 규범이 제시되어 있는 동화가 적합하다. 예를 들어 김녕 뱀굴과 같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뱀을 용감하게 물리친 이야기 등이다. 고학년에서는 주된 규범과 그것과 공존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규범이 동시에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문제사태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두 가지 규범이 동시에 제시되는 고려장이야기 등이다.

셋째, 문제 사태 속의 주인공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 요인을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 사고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도덕적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1) 교육부(1996), 앞의 책, pp 38~40

(2) 문제 사태와 관련된 규범 찾기

아동에게 제시된 도덕적 문제 사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좋은가를 찾아보는 과정이다. 어떤 사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문제사태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도덕적 문제 사태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에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행동이 전제된다면 그것들은 각각 어떤 규범들과 관련되어 있는지 또한 어떤 규범이 더 중요한가를 밝혀야 한다.

저학년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규범적 진술로 표현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고학년에서는 규범적 행동이 나타나는 덕목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3) 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기

이 단계는 주로 3학년 이상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활동 과정으로, 문제 사태와 해결을 위하여 채택한 규범의 도덕적 의미를 찾아보는 일이다.

문제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다양한 행동 방법 중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묶고, 그것들을 대표하는 규범이나 덕목을 부여한다. 즉 전래동화에 제시되어 있는 덕목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가의 타당한 근거를 찾아보는 일이다. 말하자면 규범의 타당성을 밝히는 일이다.

(4) 도덕적 판단의 연습

이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도덕적 규범이나 행동 원리들을 새로운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적용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도덕적 행동은 자신이 신념화하고 있는 규범을 단순히 준수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사태, 즉 두 가지 이상의 규범들이 갈등하고 있어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동들이 배운 규범이나 행동원리만을 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서 그 자신이 새로운 행동원리를 만들어 내어야 하며,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 실천 동기 부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을 실천하는 도덕적 습관 형성 과정이다. 도덕적 습관 형성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덕적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수업 사태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특정한 행동을 나타내기 어려우며, 반복 실천하도록 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결국 수업 사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실천적 의지와 동기를 강화시키는 일이다. 전래동화의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교훈적인 내용들의 행동 사례를 들려주거나 혹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는 일 등이 실천 의욕을 넣어주는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래동화를 통해서 배운 도덕적 규범들을 일상생활을 통하여 아동들이 도덕적 행동을 보여주고 이를 칭찬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일도 도덕적 행동의 습관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제주 전래동화 지도를 위한 일반 학습과정 구체화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 2> 제주 전래 동화지도를 위한 일반 수업과정안

학 습 과 정	교 사 활 동	아 동 활 동
안 내	*제주전래동화 자료 안내 *내용 확인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	*제주 전래동화의 내용 파악 *관련 규범 탐색 *도덕적 문제 발견
전 개	*관련된 규범찾아보기 *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아보기 *규범의 타당성 지도	*도덕적 행동 분석 *도덕적 규범 선택
정 리	*발표 분위기 조성 *긍정적 반응 보이기 *도덕적 판단력 지도	*규범의 타당성 근거 *실천 동기 강화 *도덕적 판단연습 *실천

3) 제주 전래동화 자료에 알맞은 수업모형에 따른 지도 방안

초등학교 도덕과의 수업에서 교수-학습의 과정이 과목이나 교재의 유형, 단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면, 어린 학습자는 수많은 형태의 학습과정 속에서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며, 교과간·교재간의 특이성과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⁷²⁾라고 김호권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전래동화의 각 제재의 성격과 소 제재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수업모형을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아동들이 예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도덕적 측면들을 발견하고 성숙한 태도로 도덕적 사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도덕과 수업모형 즉 개념 분석 수업모형, 집단탐구 수업모형, 역할놀이 수업모형, 가치 분석 수업모형, 가치갈등 수업모형, 가치명료화 수업모형, 토론 수업모형 등 모두를 전

72) 최윤식·김기창(1998), 앞의 책, p. 131 재인용.

래동화 학습 적용시켜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⁷³⁾. 서강식에 의하면 가치갈등 수업모형, 집단탐구 수업모형, 개념분석 수업모형은 전래동화를 이용한 수업모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치갈등 수업모형은 우리가 도덕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은 각각 별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어 있어 규범의 체제가 몹시 복잡하다 그 결과 이를 명백하게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의 우열이 쉽게 분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여러 개의 규범을 고려하여 판단 및 의사 결정을 내릴 경우 갈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갈등에서 아동들에게 도덕적 판단 및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며, 아동들에게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가치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치갈등 수업모형을 도입하고 있다.⁷⁴⁾ 그러나 초등학교 도덕과는 학생들에게 도덕규범의 이해와 내면화를 으뜸가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과 지도요소 및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에 담겨 있는 도덕 규범 및 가치 예절을 내면화시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즉 초등학교 1, 2학년의 바른 생활교과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예절과 도덕규범을 습관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초등학교 3, 4학년에서는 규범의 이해와 내면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초등학교 5, 6학년에서는 규범의 적용 및 가치 판단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가치갈등 수업모형은 가치관이 미처 확립되지 못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보다는 오히려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뿐 아니라 도덕에서의 상대적 입장을 부지중에 내면화시킬 우려가 있다.⁷⁵⁾ 그러므로 가치갈등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경

73) 서강식(1999), 앞의 책, p. 254.

74)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5」, 서울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p. 44.

75) 서강식(1999), 위의 책, p. 254.

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집단 탐구 수업모형은 탈렌(Thelen, H.A)과 리피드(Lippit, R.)의 두 집단의 교육학자들로부터 도출되었다. 집단의 교육적 가능성을 강조한 탈렌은 아동들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탐구하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집단탐구를 통해서 아동들은 교과목의 내용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협동적 학습태도로 학습 할 수 있도록 소집단 탐구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집단탐구의 핵심은 탐구의 형성에 있다고 했다.

한편 리피드는 학생들도 과학자들이 행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아동들이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 일반화함으로써 지식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믿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집단탐구 수업모형은 본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등의 수업모형으로 이용되며 사실적인 문제의 탐구를 주로 이룬다. 그러나 전래동화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서 동심을 바탕으로 하여 꾸며진 이야기” 76)이기 때문에 누가 전승하였는가에 따라 혹은 동화작가에 따라 허구적인 이야기가 전래동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적인 문제의 탐구가 주를 이루는 집단탐구 모형은 전래동화학습의 적용 상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전래동화 교육의 목적이 탐구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기능보다는 그러한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치 태도와 형성된 가치 및 태도에 근거한 실천을 주로 전래동화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집단탐구 수업모형으로 전래동화 학습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개념 분석모형은 도덕과에서 개념 분석을 하는 이유는 도덕·윤리적 개념의 명확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개념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데 있다. 즉 우리 삶의 도덕적 측면

76) 박재형(1998), p 1. 앞의 글, 재인용.

면을 반성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와 같이 분석된 개념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개념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인가를 지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안점을 지닌 개념분석 수업모형은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이나 중학년보다는 고학년에 적합한 수업모형이다. 개념의 분석작업이 경험수준에서가 아니라 주로 언어적 상징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저학년이나 중학년 아동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어 조작을 통하여 어떤 개념을 학습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⁷⁷⁾ 또한 개념분석 모형을 적용시켜 수업을 이끌어 나갈 경우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모형 단계대로 수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개념 분석 모형에서 교사의 역할은 답을 제시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개념의 의미를 점차 높은 수준에서 사고해 내도록 도와주고 유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⁷⁸⁾ 또 때로는 개념의 경계 사례나 관련된 개념과 사례를 살피는 활동이 수업시간의 제약으로 어려울 경우도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례나 개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경계에 해당되는 사례, 관련개념들의 파악이 어떤 개념들은 접근이 용이하지만 어떤 개념들은 접근하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치 명료화 수업모형, 토론 수업모형, 역할놀이 수업모형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가치 명료화 수업모형

① 수업모형 적용의 배경

제주 전래동화 교육의 목적은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래동화 교육을 위한 가치명료화 수업모형의 적용은 성장기

77) 서강식(1999), 앞의 책, p. 83.

78) 교육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도덕 4」,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p.

에 있는 많은 아동들에게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어떤 가치를 지녀야 하는지 혼란에 빠져있는 아동들의 가치를 명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명료화 이론에 의하면,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어떤 다른 원인이 없는데도 가치 혼란에 빠져 있는 아동들은 가치 명료화와 같은 가치지도의 결과, 행동유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즉 적어도 인간은 선택하고, 존중하고, 행동하는 이성적인 과정에 의하여 가치에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치명료화의 이론이다. 가치명료화의 방법은 사회과 교육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의 가치를 다루고 싶은 어떤 학과 영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기법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의 도덕과를 비롯한 여타 교과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수업모형이다.⁷⁹⁾ 그러므로 전래동화의 가치 명료화 수업모델의 적용은 아동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가치지도의 한 방법이다.⁸⁰⁾

② 가치명료화 수업모형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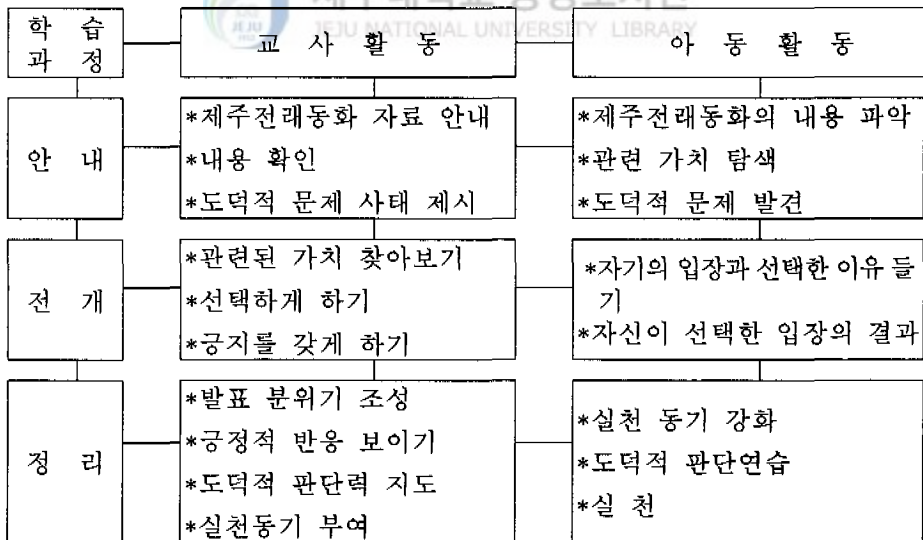
아동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 경험을 통해서 행동에 대한 일반적 지침이 생긴다. 이러한 지침들은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치라고 부른다. 특히 전래동화에는 아동들이 경험하지 못한 전통적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의 부모나 성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도덕과도 일맥 상통한다. 따라서 아동은 전래동화를 학습함으로써 이러한 도덕을 접하고 전통적 가치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가치 문제가 풍부하게 개입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에는 많은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동들은 부모, 동료, 학교, 그리고 종교적 영향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은 흔히 상호 갈등을 일으킨다. 그 결과 학생들은 '가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치명료화 수업모형을 적용하게 된다. 이

79) 서강식(1999), 앞의 책, p. 273.

80) 서강식(1998), 위의 책, p. 272

모형은 가치명료화 과정을 통해 가치 혼란을 감소시키고, 일관된 가치체제를 형성하도록 도우려는 시도이다. 가치명료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가치가 된다고 본다. 진정한 가치는 가치를 형성하는 경험들과 계속하여 관련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한 사람의 가치는 확고 부동한 신념이기보다는 어떤 특정 환경에서 다듬어져 나온 결과로서 생활양식이다. 생활양식이 가치가 되려면 '선택하기', '소중히 여기기', '선택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기', '선택한 것을 행동에 옮기기', '생활 속에서 반복하여 행동하기'의 단계가 있다. 이상의 일곱 단계 중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제적 적용은 도덕과의 일반적 절차 수업모형대로 수업을 이끌어가면서 가치명료화 수업모형의 특징적인 몇 단계만을 적용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⁸¹⁾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도덕과의 일반적인 수업모형에 가치명료화 수업모형의 몇 단계만을 적용하여 전래동화지도를 위한 가치명료화 수업을 위한 수업 과정안을 다음과 같이 구안하였다.

<도 3> 제주 전래동화 지도를 위한 가치명료화 수업 과정안



81) 서강식(1998), 앞의 책, p. 294

(2) 토론 수업모형

① 토론 수업모형의 배경

3수준 6단계라는 도덕 발달이론을 제시했던 콜버그(L. Kohlberg)는 도덕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덕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제시한 도덕교육의 방향은 크게 교실에서 토론을 통한 방법과 학교 생활 자체의 잠재적 교육과정 통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⁸²⁾ 교실활동을 통한 도덕 교육은 우리의 도덕과 수업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교사와 학생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도덕과 수업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토론을 통해서 토론 참가자들의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도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하나의 도덕 문제에 관해 자신의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고에 접하게 되면, 자신의 본래 입장이 과연 적절한 것이지를 검토해 보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그 학생은 자신의 도덕적 추론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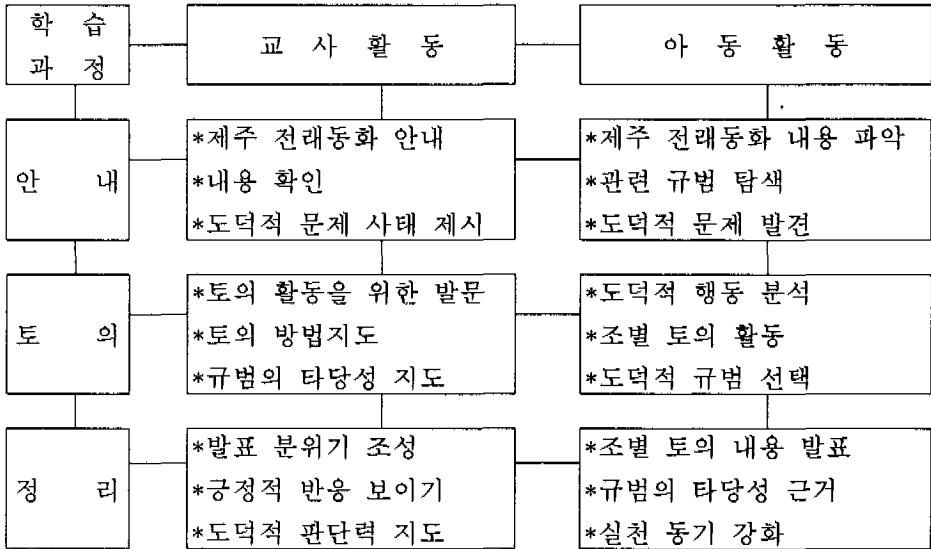
② 토론 모형수업의 단계

콜버그(Kohlberg, L.)의 토론 수업은 도덕적 딜레마의 제시로부터 시작된다. 도덕적 딜레마란 이렇 수도 없고 저렇 수도 없는 도덕적 문제 상황이다. 딜레마는 가상의 것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이 딜레마를 통해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체는 교사의 질문 제기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토론 수업에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바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질문의 단계는 적어도 두 단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나는 ‘도입 단계’로서 학생들이 도덕 문제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게 하고, 학생들의 도덕적 의식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심화 단계’로 학생들의 도덕적 추론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토론의 요소들에 초점을 둔다.

82) 교육부(1996), 「초등학교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 3-2」, 한국 교육개발원, p.

연구자가 구안한 토의학습 과정별 구체적인 수업지도 과정안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 4> 제주 전래동화 지도를 위한 토의수업 과정안



(3) 역할놀이 수업모형



① 역할놀이 수업모형 적용의 배경

역할놀이는 학생이 어떤 역할을 해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스스로가 지닌 ‘가치’나 ‘의견’을 좀더 분명하게 깨닫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역할놀이 수업모형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해 보는 인간의 행동에 관한 여러 개념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모형은 샤프텔(Shafstel, Fannie)⁸³⁾에 의하여 개발되어 ‘인간의 존엄성’, ‘정의감’, ‘애정(compassion) 등 민주적 관념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이 모형을 개발·적용하였다.

83) 서강식(1998), 앞의 책, p. 157. 재인용

역할놀이는 학급 전체의 학생들이 서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주어진 상황 속의 인물들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시행해 보며 이 같은 행동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들은 일상 생활에서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또 일의 결과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결과는 역할놀이 수업을 통하여 얻은 가치판단력이 신장되어 인간의 행동과 동기에 대한 통찰력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

② 역할놀이 수업모형의 교육적 효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아닌 상대방의 흉내를 내려는 본능에서 연극행위가 시작되었다. 오늘날 연극이 예술의 한 장르로서 구실을 다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모방본능의 행위를 체계화하고 형상화하는 데 있다. 또한 연극은 인간의 갈등, 투쟁, 모순 그리고 번민에 젖게 하여 그 감정 다음에 오는 반성과 교화로 인해 심성을 정화하는 데 있다

아동극은 성인극과 달리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은 연극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을 순화할 수 있고 아동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므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아동극에서 집단원은 공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각 성원은 일을 분담하게 되고, 일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과업 달성을 위한 역할 기능은 선도적 역할, 정보의 수집·제공 역할, 조정적 역할, 평가적 역할로 공동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허운나⁸⁴⁾의 역할놀이 수업모형에서 소개한 반케탈(Banketal)의 역할극 수업의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84) 허운나(1985), 「역할놀이 수업모형」, 한국교육개발원, p 254.

첫째, 학생들은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함으로써 문제에 직면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가치, 충동, 공포 또는 다른 외적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셋째, 학생들은 역할놀이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모의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이상이나 의견을 행동으로 시험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가상적으로 어떤 역할을 행함으로써 문제나 상황의 핵심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역할놀이의 방법을 배움으로써 인간 상호작용의 기술을 배우고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동기를 좀 더 깨닫게 된다.

③ 역할놀이 단계

교사들이 역할놀이 수업모형을 활용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할 여섯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물론 단계의 순서는 있지만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다. 또한 어떤 단계는 학생과 함께 여러 번 반복할 필요도 있다. 각 단계에 얼마나 시간을 할당하는 것도 수업의 분위기나 학생들의 흥미에 좌우된다.

- 1단계 : 역할놀이 상황 설정
- 2단계 : 역할놀이 준비
- 3단계 역할놀이 참가자 선정
- 4단계 : 청중의 준비 자세 확인
- 5단계 . 역할놀이의 실연
- 6단계 : 역할놀이 검토와 평가

④ 역할놀이 모형의 적용 조건

- 첫째, 자료

역할놀이 수업을 적용할 때 교사가 해야 할 일은 교실에서 역할놀이에 적합한 문제나 상황을 선정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은 전래동화 작품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이 세세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 관련 인물이 겪는 상황이나 현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분명히 상상하게 한다.

-둘째, 학급 구성

학급 활동에 따라서 학급 구성에 변화를 두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학생을 모두 역할놀이에 참여시키지 않고 소집단별로 따로 역할놀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집단은 역할놀이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토의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차례 차례 학생들 앞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셋째, 역할놀이 집단 조직

역할놀이에는 대개 한 사람의 교사에 의해서 활동을 진행한다. 그러나 만일 교사가 소집단으로 나뉘거나 언제나 방해가 되는 학생들이 몇몇 있을 경우에는 동료 교사나 고학년 학생의 도움으로 소집단을 맡아서 활동하며 역할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조하는 사람이 학생들과 친숙해야 한다

-넷째, 시간 계획

역할놀이 활동은 매우 융통성 있게 계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더 개발할 필요가 있거나, 아이디어를 좀더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여러 가지를 대안과 해결 방법을 탐구해야 할 경우에는 토론과 재연을 위하여 수업 시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역할놀이 수업모형의 적용 조건들을 살펴보았지만 교사가 어떤 경우에 역할놀이 수업모형을 활용하기로 결심하는 데는 다음과 두 가지 기 분 이유가 있다. 첫째, 역할놀이의 상황은 여러 가지 토론하고 분석할 자료 들을 만들어 준다는 뜻에서 유용하며, 둘째, 조상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인간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한 집단의 학생들과 상담하는 일이다. 역할

놀이 수업에서 사용 가능한 초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역할놀이 수업에서 사용 가능한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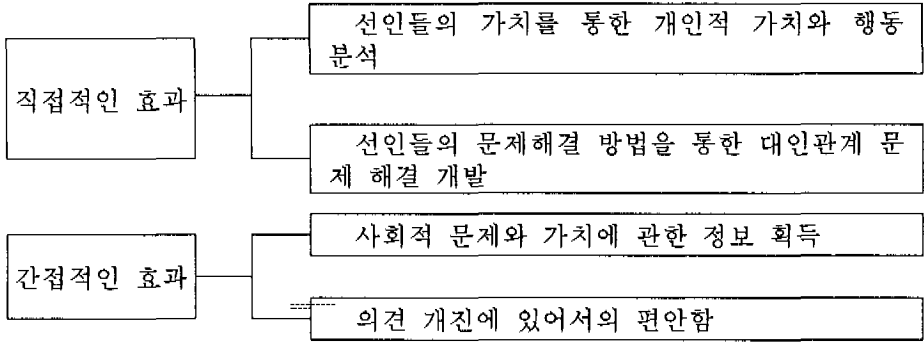
감정	1. 자기 자신의 감정 탐색하기 2. 타인의 감정 탐색하기 3. 감정을 표현하거나 방출하기 4. 타인과 자기 자신의 지각을 바꾸기 위하여 자기보다 높은 지위의 경험을 하기
태도·가치 지각	1.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의 가치 확인하기 2. 자기 자신의 가치와 가치감등을 명료화하고 평가하기
문 제 해 결 태도 및 기 능	1. 가능한 해결책에 개방적임 2. 문제 규명 능력 3. 대안적 해결책을 창출할 능력 4.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미칠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 5. 결과를 경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6. 대안들에 잠재된 기준과 가정을 분석하기 7.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기
교과내용	1. 참여자들의 경험 2. 역사적 현실 : 역사상 위기, 딜레마, 결정 등

⑤ 역할놀이 수업모형이 기대되는 학습 효과

역할놀이 수업모형은 첫째, 가치와 행동의 분석, 둘째, 대인관계(개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개발), 셋째, 타의에 대한 감정 이입의 전개와 같은 일을 돕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 모델의 간접적 효과는 사회 문제와 가치에 관한 정보의 획득과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심적 안도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진래동화를 역할놀이 수업모형에 적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도 5> 전래동화를 역할놀이 수업모형 적용시 기대 효과



⑥ 역할놀이 수업모형의 실제적 적용

전래동화 학습을 위하여 연구자가 도덕과 역할놀이 수업모형을 구안한 수업 과정안은 다음과 같다.

<도 6>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역할놀이 수업 과정안

학 습 과 과 정	교 사 활 동	아 동 활 동
조별 토의 및 역할분담	*도덕적 측면 인지 *도덕적 사태에서의 모범 적 행동 알기 지도 *역할 분담 지도	*전래동화를 듣고 조별 토의 *역할 분담 *실연계획 수립
실연활동	*분위기 조성 *실연관람 태도 지도 *도덕적 문제 탐색	*조별 실연활동 *다른 조와의 실연내용 비교 *도덕적 행동 분석
반성활동	*관람소감 발표 *도덕적 규범관련 지도 *실천동기 부여	*자신의 생각 발표 *규범의 타당성 확인 *도덕적 판단력 함양

2. 초등학교 4학년 도덕과 학습지도의 실제

1) 교수-학습지도 과정안의 단계별 활동 내용과 투입 시기

제주 전래동화를 교수-학습 활동에 적용하는 도구로서 교수 학습지도안은 앞 절에서 논의된 수업모형을 근거로 하고 4학년 1·2학기 교사용 지도서의 교수-학습 활동 과정을 참고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본 연구자가 구안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도덕과 단위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먼저 문제 사태를 제시하고 문제의 명료화를 위해 규범을 선택, 개념화하여 도덕적 가치 판단력을 길러 실천 동기를 강화하는 단계로 구안하였다.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의 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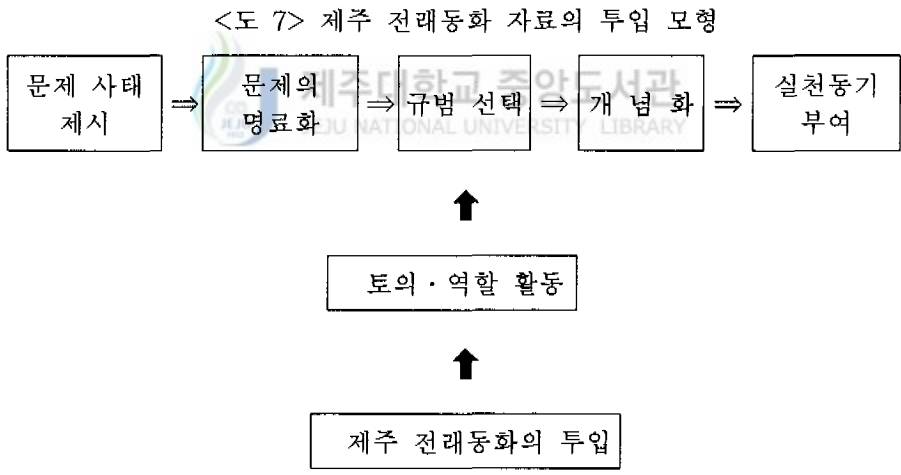
<표 4>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

학 습 과 성	교 수 - 학 습 활 동		전래동화 투입	주활동	지도상 유의점
	교 사	아 동			
문제사태 제시	· 교과서 예화의 문제 사태 제시	· 교과서 내용 숙지 · 도덕적 문제 사태 파악	· 제주 전래동화 자료 제시	읽기	· 교사는 수용적 태도 조성
문 세 의 명 료 화	· 도덕적 문제 사태에 대한 규범 찾기 지도	· 도덕적 행동에 대한 분석 활동 · 규범 덕목 찾기	· 제주 전래동화에 나타난 도덕적 행동 탐색	토의	· 도덕적 사고를 근거로 자유롭게 토론
규 범 선택	· 채택된 규범의 도덕적 의미 지도	· 행동에 대한 규범의 타당성 찾기 · 동일행동 규범 묶기	· 제주 전래동화에 나타난 도덕적 행동에 대한 토의 활동	토의	· 도덕적 행동에 대한 자기의 입장 선택
개 념 화	· 도덕적 판단력 지도	· 규범에 대한 행동의 정당한 이유 · 도덕성 · 규범 · 원리 적용	· 제주 전래동화 자료에 의한 토의 · 역할 활동진개	토의 역할	· 토의 · 역할놀이 학습 모형에 따라 학습 전개
실천동기 강화	· 도덕적 습관형성을 위한 지도 · 실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자료 제공	· 도덕적 행동의 실천적 의지 강화 · 제주 전래동화를 통해 도덕적 행동 본받기	· 동일한 규범의 제주 전래동화 투입	발표	· 자기의 다짐을 통해 도덕성 강화

제주 전래동화의 투입시기는 도덕적 학습 지도 과정을 전개할 때 제재의 보충 교재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투입한다

- 학습지도의 매 단계의 보충자료가 필요할 때
- 도덕적 실천동기 강화를 위한 자료가 필요할 때
- 토의·역할 활동을 위한 예화 자료가 필요할 때
- 도덕적 가치 판단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 내릴 때
- 행동의 규범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를 내세울 때
- 인지할 도덕적 지적 능력의 신념화를 기할 때
- 학습지도과정의 매 단계마다 투입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제주 전래동화로 토의·역할 학습이 가능한 단계에서만 투입한다.

이상의 투입 시기를 토대로 도덕과 학습지도 모형과 단위시간에 적용할 내용을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2)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도덕과 학습 지도의 실제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도덕과 학습을 전개함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흔히 적용되고 있는 수업모형인 토의학습과 역할놀이 학습을 중심으로 실제 적용을 예시한다.

(1) 토의 학습의 실제(예시)

제주전래동화를 이용한 토의 학습을 전개하기 위해 적용 제재를 추출하여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토의학습 수업모형에 따른 지도과정을 설정하였다

① 토의 학습내용 선정

제주 전래동화의 투입·적용을 위한 학습 지도 계획에 의거, 토의 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제재를 추출하여 다음 <표 5>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5> 토의학습 적용제재 및 내용 선정

제 재	소 제 재	주 요 지 도 내 용	덕목	전 래 동화명	도덕적 행동
4-1-1 자주적인 생활	*스스로 생각 하고 행동하 는 생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 활의 중요성을 알고 노력과 실천을 통해 연습해 나아가기	자주	죽었다 산사람	*역경을 딛고 꾸준 히 소질을 계발
4-1-2 소중한 약속	*약속은 왜 지 켜야 할까 요?	*약속의 종류와 지켜야 하는 이 유에 대해서 알기	성실	월계 좌진수	*좌진수의 성실함
4-1-5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자기 생각만 하는 철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생각 하지 않는 태도의 나쁜 점 알기	타인 존중	시흥리의 현씨남매	*양보하는 마음 갖 기
4-1-6 서로 돕는 생활	*명호와 진영	*명호와 진영의 행동을 비교 하여 협동의 옳은 점 및 태도 갖기	협동	봉사와 앓은 뱀이	*자기의 단점과 장 점 알기
4-2-1 건강한 생활	*아침 조회 때 생긴 일	*도훈이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몸이 취약해지는 이유와 그 문제점 찾기	생명 존중	고려장 이야기	*늙으신 부모를 섬 기는 마음
4-2-2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선물	*소년과 주인간의 옛 이야기물 통해서 시간의 소중함 깨닫기	실천 의지	박계곤	*박계곤의 행동
4-2-5 용기 있는 생활	*영호의 용기	*영호와 민호의 행동을 통해 용 기 있는 행동의 사례 알기	경애	평양당신	*여러 사람을 위한 일

제주 전래동화를 이용한 토의 학습을 전개하기 위해 적용 제재를 추출하여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토의 학습 과정안을 설정하였다.

② 토의학습 지도 과정

교사가 문제 사태를 제시하여 안내하는 과정, 아동이 제시된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 그리고 토의 활동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토의 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토의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과정을 제시한다.

토의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 과정을 도시하면 다음 <도 8>와 같다.

<도 8> 토의학습 과정



③ 지도의 실제 (예시)

- 대상 : 4학년
- 일시 :
- 관련 단위 제재 및 투입시기
 - 4학년 1학기, 2. 소중한 약속(3/3), 소단원 · 약속은 왜 지켜야 할까요?
 - 규범의 내면화 단계 투입
- 목표 : 제재와 관련된 제주 전래동화를 듣고 도덕적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다.
- 덕목요소 : 성실
- 학습자료 : 제주 전래동화

<토의 학습 전개>

안 내

-- 제주전래동화 내용 제시 T : 교사 활동

T : 제주 전래동화의 내용을 확인한다.

토 의

-- 도덕적 행동분석

T :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토의 주제를 제시한다.

정 리

-- 도덕적 가치 판단력 신장

T : 토의 정리한 결과를 보고·발표하게 한다.

T : 제주 전래동화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T :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2) 역할놀이 학습의 실제

제주전래동화에 대한 조별 토의를 거쳐 역할 분담을 한 후, 실연 활동으로 예화를 소개하고 실연 후 반성 활동의 과정을 거치는 역할놀이 학습을 전개한다

역할놀이 학습 과정별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하면 다음 <도 9>와 같다

<도 9>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역할놀이 학습 과정안



제주 전래동화의 적용을 통하여 도덕적 규범의 실천화 방안으로 역할놀이 학습을 적용한 수업의 실제는 다음과 같다. 단 역할 놀이의 시간은 5 ~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한다.

(예시)

역할놀이 교수-학습과정안

관련 제주 전래동화		유반석과 무반석		
관련제재	4-1-5 .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지도요소	이해하는 마음	
제재	날말의 뜻 알아보기	투입시기	'실천강화, 도입단계에 투입	
학습 목표	♣유반석과 무반석의 내용을 극화하여 도덕적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다.	갈등요소	제주 전래동화 학습 자료	
		준비물		
단계	수업과정	교수-학습활동		
문제사태 제시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봅시다 • 제주 전래동화 학습자료의 삽화를 제시한다 • 삽화내용을 들려주면서 제주 전래동화 수월봉과 녹고불의 내용을 들려준다 		자료 및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동네와 동동네가 싸우게 된 원인을 알아본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선생님과 공부할 문제를 생각해 보자 		
	글의 내용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 등장 인물들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봅시다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 등장 인물들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봅시다 		
	문제 상황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 상황을 자세히 읽어보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해 봅시다 • 문제 상황을 자세히 읽고 글 속어떤 처지인가를 파악한다 		

단계	수업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문제사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 첫동네 사람들은 자기네가 힘이 세다고 하여 동동네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였다 자기네의 힘을 믿고 동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다 결국은 당하게 된다 	자신이 스스로 해보겠다는 아동을 시킨다
자기 입장의 선택	<p>문제 상황의 성격분석 관련 규범 찾기</p> <p>역할 놀이 수행자 선정</p> <p>제1차시행 역할 바꾸기</p> <p>제2차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이 약하다고 하여 언제나 무시당하고 살아왔던 동동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 내가 동동네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역할을 맡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지 생각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자 ○ 위치와 상황을 정리하여 주며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해 보게 한다 ○ 지금 했던 대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각 소집단별로 토의 해보자 • 자기 입장의 정당화, 남의 입장 비판하기 ○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했던 반대의 입장을 확인 해 보고 변호하게 한다 	
자기입장의 수정 및 내안 찾기	다른 해결방안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입장에서 역할을 해보게 한다 ○ 지금까지 방법 외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 • 다른 해결 방법 찾기 	
	제3차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의 방안 말고 다른 해결방안 대로 역할을 맡아서 해보기 • 자신의 해결방안과 느낌을 학습지에 정리 • 역할을 맡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지 생각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자 	
	차시 예고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 예고물 하고 정리를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도덕과 교수-학습지도 방안을 모색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제주 전래동화는 제주에서 전승되는 이야기 중 동심을 밑바탕으로 꾸며진 이야기로 제주 선인들의 공동참여에 의해서 갈고 다듬어진 것을 바탕으로 제주민의 가치관과 정서가 깃들여 있는 귀중한 학습자료이다. 그러나 전래동화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도덕과 교육과 관련된 지도 방법에 대한 노력은 다소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 전래동화와의 관계 고찰을 위하여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원리와 문제점 분석과 전래동화의 도덕교육적 의의를 고찰하였으며 제주 전래동화 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제주 전래동화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여 자료화하였으며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도덕과 학습지도 방안을 구안하였다.

현행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은 아동들의 도덕성 함양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전래동화의 흥미적 요소와 더불어 조상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통하여 합리적인 도덕적 근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전래동화가 도덕과 학습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래동화의 도덕교육적 의의는 전래동화가 아동의 도덕적 통합성 개발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은 전래동화를 읽음으로써, '사고와 행위,' '사고와 감정,' '사실과 가치' 등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이 모든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도덕적 능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 윤리관이 반영된 도덕적 상황을 담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나타내고 있는 동기와 결과, 민감성과 감정, 신념과 결단 등은 아동의 도덕적

사고와 실천에서의 유용한 자료로서 구체적 상황에서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한 행동이 되풀이되고 악한 행동이 벌을 받는 장면이 반복되는 전래동화는 아동에게 시적 정의감을 일으켜 상상의 세계 속에서 등장인물과 일체가 되어 그 모든 사건과 도덕내용을 함께 체험하게 하는 등 도덕적 지각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전래동화는 전통적 가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등장인물을 통해서 원리에 따라 사고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도덕적 사고과정을 경험하는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전래동화는 아동에게 도덕적 사고 방법과 그런 사고과정 끝에 채택된 도덕적 결단을 보여주는 도덕교육의 중요한 교수매체로서 의의를 갖는다.

제주 전래동화의 학습자료의 개발을 위해서는 문헌으로 기록되어진 전래동화 160여가지를 내용별로 도덕적 요소를 분석하였더니 인간의 일반 심성과 관련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제주민들이 새롭게 변형시켜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주 전래동화의 주인공은 일상적인 평범한 인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앞에 닥친 고난이나 불행에 좌절하지 않고, 이들과 싸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행복을 얻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아동들에게 고난극복의 의지를 부여하는 데 좋은 교육자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제주 전래동화를 도덕과 학습자료화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제주 전래동화의 자료화는 교육과정의 분석, 제재별 지도 요소 추출, 제주 전래동화의 분석 과정을 거쳐 학습자료를 목록화하였다.

제주 전래동화 자료를 활용한 학습지도 방안 구안을 위하여 도덕과의 가치·태도 내면화의 단계별 지도는 블룸(Bloom)의 교육목표 분류 5단계를 적용하여 제시하였으며,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도덕과 일반 학습과정을 구안하였다.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도덕과 수업모형을 검토한 결과 제주 전래동화 활용 수업모형으로 적당하지 않은 수업모형으로는 가치 갈등, 집단 탐구, 개념분석 수업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치 명료화 수업모형, 토론 수업모형, 역할놀이 수업모형에 대해서만 고찰하여, 그 수업의 실재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도덕과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 도덕과 교육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수업현장 적용에 대한 검증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도덕과 학습지도 방안 구안에서 4학년울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이유로는 4학년 사회교과의 사회과 탐구에 의하면 ‘우리고장을 학습’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 단원과 연계한 전래동화를 이 시기에 집중 지도하였을 때, 교육적 효과가 더욱 배가 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전래동화 교육은 4학년에만 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유아기에서 청·장년기까지 구비전승되는 특성을 갖기에 이는 통합학문에 적용시킬 수 있다. 국어교과에서는 전래동화 속에 나타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성격, 인간관계, 주요 사상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겠고, 서사물 속에서는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상, 자연관, 인간관 나아가 구연하는 행위에 대한 연구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서정, 서사, 극으로 분파되기 이전의 종합 예술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저·중·고학년 어느 과목에서도 전래동화를 이용한 교육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bstract>

A Teaching Method using the Folk Tale of Cheju

- the subject of 4th grade students of primary school

Kim, Sun-hui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Bang-joo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traditional fairy tale to the learning of the moral subject. As the educational system connected with home and society has not been constructed yet, the educational goal can not be achieved just with the education of the moral subject of primary school these days. Since the traditional fairy tale informs the contents appropriate to the educational goal in which a speaker and a learner are at the same time and the same place, it is suitable for the morality education of children.

Selecting the contents appropriate to the level of 4th grade students among the collected date until now, the learning material applicable to the learning of the moral subject was made. The respect of life took up the most part.

Also applying the 5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 of Bloom to the class, teaching model was made. Usually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of traditional fairy tale and concerning about the character and events, children did the evaluation of them. It makes children judge the good and evil of character and right sense of value through the discussion with children.

The traditional fairy tale handing down from the place where children live has the educational value of ancestor on the descendants. so the teaching of the moral subject using it is necessar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참 고 문 헌

1. 설화 및 전래동화집

- 현용준(1977), 「제주도 신화」, 서문당.
_____ (1996), 「제주도 민담」, 제주문화.
_____ (1976), 「제주도 전설」, 서문당.
현길언(1984), 「제주도 이야기 1,2」, 창작과 비평사.
제주도 편(1985), 「제주도 전설집」, 제주도
아동문학협회(1992), 「탐라가 탐라요」, 영주문학사.
_____ 「알동네 웃동네」, 영주문화사.
현용준·김영돈(1980~83), 「한국구비 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 연구소
이원수·손동인(1980), 「한국전래동화집 5」, 창비아동문고
최래옥(1983), 「한국전래동화집 8~10」.

2. 저 서

- 최운식·김기창(1988), 「전래동화 교육론」, 집문당.
임재해(1991), 「설화 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손동인(1984), 「한국전래동화연구」, 정음문화사.
강병원(1998), 「가치 학습의 이론과 수업 특성」, 교육연구
이돈희(1998), 「도덕과 교육원리」, 교육과학사.
이홍우(1986), 「도덕교육」, 능력개발사.
조남식(1982), 「도덕과 지도의 일반적 원리」, 교육개발원.
정원식(1977), 「지력과 정의의 교육」, 배영사.

김안중의(1988), 「한국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진석(1990), 「가치판단 학습과 도입지도」, 교육연구.

박용현(1989), 「학습이론」, 교육과학사.

허나운(1985), 「역할놀이 수업모형」, 한국교육개발원.

강재희(1987), 「역할놀이 수업」, 배영사.

최운식 · 김기창(1988),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이영춘(1983), 「도덕과 교육」, 교육과학사.

유영춘(1973), 「도덕교육의 이론적 기초」, 현대교육총서출판.

안창일 · 정언효(1983), 「교육심리 · 생활지도」, 신교육학 연수총서 4, 갑을 출판사.

심재룡(1987), 「문화 교차의 맥락에서 본 한국전통사상의 정체」, 한국문화 8.

교육자료(1984), 「아동극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출판.

교육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4」,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교육부(1996), 「교사용지도서 도덕 4-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3. 논문

정대련(1991), “한국전래동화의 윤리학적 탐구”, 이화여자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재형(1998), “제주 전래동화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명희, “한국 전래동화와 어린이 고전 소설에 나타난 가치관의 분석”,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성진(1989), “한국 전래동화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현길언, “제주 설화를 통해 본 제주도 정신고구”, 「논문집」, 제 12집
제주대학교.

김재식(1996), “도덕 교육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의 문제”, 전환기의 국가
와 윤리, 한국교원대학교

김고환(1984), “구비전승의 교육적 기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고희정(1990), “도덕과 학습의 현황분석과 효과적인 수업방법의 탐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신명희(1976), “한국 전래동화가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
교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김선희(1998), “제주 설화의 역할극 학습자료개발·적용이 어린이의 도덕
성의 내면화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현장연구대회 현장연구 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 록

<부록 1> 1학기 제재 관련 제주 전래동화 선정표 97

<부록 2> 2학기 제재 관련 제주 전래동화 선정표 102



<부록1> 1학기 제재 관련 제주 전래동화 선정표

관 련 제 재	제주전래동화 제목	내 용
1 자주적인 생활	죽었다 산 사람	<p>김정승의 외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저승으로 가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염라대왕이 저승문서를 건다 보니, 아직은 저승에 오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었다. 염라대왕은 당장 저승차사를 불러 세워 놓고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다. 저승 차사는 이승으로 가서 먼길을 건다 보니 매우 피곤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마침 저 사람(김정승의 아들)이 지나가고 있기에 대신 잡아 왔노라고 일렀다. 염라대왕은 김정승의 아들을 당장 이승으로 내보내라고 하명했다. 김정승의 아들은 이승으로 나오기 위하여 백강아지의 뒤를 따라 연못에 풍덩 빠졌는데, 곧 저승 열두 문에 당도했다. 그러나 인정(돈)이 한푼도 없었기 때문에 저승 문을 빠져나오기 어려웠다. 때마침 한 견에 보니 주모 함씨의 돈 창고가 있었다. 주모 함씨는 이승에서 눈봉사이면서도 술장사를 하며 모은 돈을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었다. 그가 도와 준 돈만큼 저승창고에 돈이 싸여있는 것이다. 김정승의 아들은 그 돈을 빌어서 저승문을 통과할 때 마다 인정을 걸며 삼일만에 나올수 있었다.</p> <p>이 말을 아들에게 들은 김 정승은 함씨 주모에게 원하는 대로 돈을 갚으려 하지만 함씨 모는 이를 거절한다. 그러나 아들의 말을 들은 김정승은 꼭 돌려주기를 원하기에 차마 거절 할 수 없었던 주모 함씨는 양반의 신분으로 먼길까지 백냥을 짊어지고 온 성의를 생각해서 그 돈을 받아들인다. 그러자 함씨 주모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 이승에서는 물론 저승에서 좋은 일을 하며 잘 살았다고 한다.</p>

관련 제재	제주전래 동화 제목	내 용
3. 친족 간의 예 절 (가정 예절)	오백장군	<p>옛날 어떤 어머니가 아들 오백 형제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식구는 많은데다 마침 흉년이 들어 끼니를 이어 가기가 힘들게 되었다</p> <p>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죽이라도 끓여 먹고 살 게 아니냐’고 타일렸다. 오백 형제가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p> <p>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와 먹을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큰 가마솥다 불을 때고 술전을 걸어 놓고 돌아다니며 죽을 지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디어 어머니는 죽솥에 빠져 죽어 버렸다</p> <p>그런 줄도 모르고 오백형제는 돌아와서 죽을 먹기 시작했다. 여느 때보다 죽이 맛이 좋았었다</p> <p>맨 막내동생이 죽을 먹으려고 술을 짓다가 빠다귀를 발견했다 이상하다 하고 잘 저어보니 사람의 빠다귀임이 틀림없었다</p> <p>동생은 어머니가 빠져 죽은 것이 틀림없음을 알았다. ‘어머니의 고기죽을 먹은 불효의 형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동생은 이렇게 통탄하며 멀리 한경면(翰京面) 고산리(高山里) 차귀섬(遮歸島)으로 달려가 한없이 울다가 바위가 되어 버렸다</p> <p>이것을 본 형들도 그제야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 늘어서서 한없이 통탄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 이것이 바로 오백장군이다. 그러니, 영실(靈室)에는 499장군이 있는 셈이고 차귀섬에 하나가 떨어져 나와 있는 셈이다</p> <p>차귀섬의 오백장군은 대정읍 바굼지오름(篋山)에서 환히 보인다. 어느 한 해 지관(地官)이 바굼지오름에서 밋자리를 보게 되었다. 지관은 자리를 하나 고르고는 ‘산(墓)은 좋긴 좋은데 차귀섬의 오백장군이 보이는 게 흠이다’고 했다. 상제는 그것쯤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여, 차귀섬으로 건너가 도끼로 그 바위를 찍어 버렸다. 그래서 차귀섬의 오백장군에는 지금도 톱이 진 자국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p>

관 련 제 재	제주전래 동화 제목	내 용
4. 용서 하는 마음 (관용)	시흥리 현씨남매	<p>현씨(玄氏) 부부가 여기에 살고 있었다. 현씨는 자식을 낳으면 힘이 센 자식을 낳아야 하겠다고 늘 생각했다. 그래서 부인이 임신을 하자, 계속 소를 열 마리나 잡아 먹었다. 아들을 낳으리라 믿고 열 마리씩이나 잡아 먹은 것인데, 낳은 것을 보니 딸이었다. 이 딸아이의 힘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다음에 또 부인이 임신을 했다. 다시 현씨는 소를 잡아 먹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홉마리만 잡아 먹이기로 했다. 그러나 혹시 딸을 다시 낳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낳은 것을 보니 아들이었다. 이 아들도 힘이 세었다.</p> <p>어느 겨울, 설한풍이 몰아치는 날, 현씨 딸은 허벅에 물을 지고 그 길을 오르고 있었다. 몰아치는 눈발을 헤치며 가다 보니 내려오는 사슴 한 마리가 눈앞에 딱 마주쳤다. 그때는 인가가 많지 않은 때였으니, 한라산의 사슴들이 눈을 피해서 해변까지 흔히 내려왔었다. 사슴은 사람을 보자 길을 꺾어 도망가려 했다. 현씨 딸은 허벅을 진 채 훌쩍 내닫더니, 뛰는 사슴을 앞질러 가서 두 뺨을 잡고 껌 돌았다. 사슴이 벌렁 쓰러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사슴을 잡아 물러메고 들어가니 현씨도 과연 딸의 힘에 놀랐다 한다.</p> <p>이 무렵, 구좌면 김녕리(金寧里)에서 씨름판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들려 왔다. 현씨는 이 기회에 아들의 힘과 딸의 힘을 견주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아들을 씨름판으로 보내고, 뒤이어 딸을 남장(男裝)시켜 좃아가 보라 했다.</p> <p>씨름판은 현씨 아들을 이기는 자가 없었다. 완전 독판을 모는 것이었다. 현씨 아들은 기세가 등등하여 휘둘러 가니, 여기저기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군중들은 와아하고 일어섰다. 정의(旌義) 늬이 목안(牧內·제주시내)에 와서 독판을 치다니, 이 늬 발모듬을 해 버려야 하겠다는 것이다.</p> <p>이때 남장한 누님이 턱 나셨다.</p> <p>씨름이 붙었다. 누님인 줄을 모른 현씨 아들은 가소롭다는 듯 달려들었다. 그러나, 소 열 마리를 먹고 낳은 딸이 이길 것은 뻔한 일이었다.</p> <p>동생을 쓰러뜨린 누님은 군중을 향해 말했다.</p> <p>‘난 저 목안 서촌에 사는 사람인데, 정의 늬이 와서 독판을 보니 목안 사람으로서 껌 씹혀져 가지고 붙어 보니 하찮은 늬이로고만(늬이로군). 기냥(그대로) 내 불주(내버림시다).’</p> <p>그제야 김녕(金寧) 사람들의 울분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하여 동생의 위기를 구해 주었다 한다.</p>

관 련 제 재	제주전래 동화 제목	내 용
5. 이해 하 는 마 음 (타인 존중)	유반석과 무반석	<p>안덕면(安德面) 화순리(和順里)는 동·서 동네로 나누어져 있다 서편은 첫동네, 동편은 동동네라 한다.</p> <p>동동네 큰 바위가 있으니, 이를 유반석(儒班石)이라 해 왔고, 첫동네 서쪽 썩은다리라는 언덕에 또한 큰 바위가 있으니, 이를 무반석(武班石)이라 일컬어 왔다. 동동네에는 양반들이, 첫동네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살았었다. 동동네 사람들은 학식이 높고 지혜가 있었으나 첫동네 사람들은 학식이 나 지혜가 없었다 그 대신 힘들이 장사여서 학식 높은 동동네 사람들은 항상 첫동네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고 지냈다 어느 해엔가, 육지에서 어떤 신안(神眼·地衛 또는 相述에 정통한 사람의 눈)을 가진 이가 화순리에 들리게 되었다 그는 동동네 어느 집에 머무르면서 동동네의 유반(儒班)들이 첫동네의 무반들에게 물리고 있음을 보았다. 신안을 가진 이는 그 원인을 찾아내었다 그것은 밤이었다. 동동네 냇가의 큰 바위에서도 불빛을 발하고, 첫동네 썩은다리의 바위에서도 불빛을 발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 불빛이 바로 유반석과 무반석에서 발하는 정기인데, 무반석의 불빛은 환하고 유반석의 불빛은 마치 반딧불 같았다. 신안을 가진 이는 곧 동네 사람들을 불러내어 불빛을 가리켰다 그리하여 유반들은 피를 내어 무반석을 쓰러뜨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바위는 유반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고, 무반의 힘을 피로써 이용할 길밖에 없었다. 얼마 후, 동네에 장사가 났다. 동·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 장사가 끝나자, 유반들은 이미 꾸며 놓은 채찍대로 무반들에게 술을 권했다 무반들은 그만 피에 넘어갔다 첫동네 사람들은 힘 자랑을 하려고 달려들었다. 받침대로 때미는 놈, 손으로 때미는 놈, 힘을 합쳐 밀어제치니, 무반석이 덜렁하게 꺾어져 굴러 떨어졌다 순간 그 자리에서 청비 돌기가 푸드득 날아가는 것이었다.</p> <p>이튿날부터 첫동네 무반들은 힘 센 놈부터 하나씩 돌씩 죽기 시작했다 무반의 세력이 점점 시들어 가는 것이었다 그 때에야 무반들도 유반의 술책에 넘어가 바위를 굴러 버린 때 문임을 알았다 사람들이 분개하여 일어섰다 첫동네 무반들이 와르르 유반석으로 물려왔다 받침대를 유반석 밑으로 대고 받침돌을 받쳐 힘껏 밀었다 그러나 이미 무반석의 정기가 없어져 장사들이 죽어 버렸기 때문에 바위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다.</p> <p>그래서 지금도 유반석이라는 바위는 그 때 떠밀 때 들린 대로 한쪽 밑굽이 들려져 있고 거기에 받침돌까지 받쳐진 대로 남아 있다.</p> <p>그 후로 동동네 사람들이 역시 세력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p>

관 련 제 재	제주전래 동화 제목	내 용
6. 서로 돕는 생 활 (협동)	봉사와 앓은뱅이	<p>옛날 키가 크고 다리가 튼튼했으나 앓을 못 보는 봉사와 눈을 밝으나 걸을 수가 없는 앓은뱅이가 있었다 두 사람을 서로 의논하여 앓은뱅이를 업으면 앓은뱅이가 봉사의 귀를 이리저리 방향을 돌려 걸으면서 동냥질을 하여 살기로 하였다 어느날 우물 속에서 금덩어리를 보자 둘이는 서로 금덩어리가 아닐 것이라고 단정하고는 그냥 가버렸다 다시 동냥질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어느 집 주인에게 금덩어리가 있는 곳을 말해버렸다 그런데 그 주인이 본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구렁이였다. 주인을 속인 죄로 뺨을 얻어맞은 봉사와 앓은뱅이는 다시 가 본 결과 금덩어리가 확실하여 그 금덩어리를 꺼내어 부처님께 올리고 뺨을 친 주인의 복수나 해 달라고 하였다 그 후 봉사와 앓은뱅이는 절간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그리고 앓은뱅이는 다리가 펴지고 봉사는 갑자기 개명천지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온전한 사람으로 변한 두 사람을 그후로도 협동하며 잘살았다고 한다</p>

<부록 2> 2학기 제재 관련 제주 전래동화 선정표

관 련 제 재	제주전래 동화 제목	내 용
1. 건강 한 생활 (생명 존중)	기건목사	<p>아득한 옛날 제주도에는 시체를 묻는 법이 없었다 70세 이전에 죽으면 바닷가나 개천같은 데에 그대로 던져 버렸다</p> <p>그러나 70세가 되도록 살면 이 사람은 신선이 될 사람이라 했다. 그래서 70세가 되는 날 그 아들이 여러 가지 맛이 있는 음식을 차리고 아버지를 한라산으로 모셔 갔었다 한라산 정상에 이 음식을 차려 놓고 아버지를 앉혀 두면 그 날로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는 것이다</p> <p>이 풍속은 조선조(朝鮮朝) 때까지 내려왔다. 세종 때에 기건(奇虔 : ?~1460)목사(牧使) 시절이었다.</p> <p>어느 날 이방(吏房)이 목사에게 아뢰었다.</p> <p>“내일은 아버님이 신선이 되는 날이어서 일을 보지 못하겠습니다.”</p> <p>“어떻게 신선이 된다는 말이고?”</p> <p>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난 목사는 한참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p> <p>“음, 그러면 내 옥황상제에게 편지를 한 장 써 보낼 터이니, 아버님께 전달하여 주시도록 부탁해 줄 수 있을까?”</p> <p>“예, 어렵지 않습니다 ”</p> <p>목사는 자그마한 봉투를 넘기며 꼭 가슴에 품고 소중히 가져 가 넘기도록 하였다. 이튿날 이방은 아버지를 모시고 한라산으로 올라가 작별했다.</p> <p>이방은 등청(登廳)하자, 목사는 옥황상제에게 보내는 편지를 소중히 가슴에 품졌는가를 확인했다 그랬다는 것이다.</p> <p>“그러면 다시 한라산에 올라가 보게, 아버님이 신선이 되어 잘 오르셨는지 ”</p> <p>이번엔 이방을 따라 목사도 같이 올라갔다. 신선이 되도록 아버지를 앉혀 둔 자리엔 커다란 뱀이 한 마리 죽어 넘어져 있었다 목사는 그 뱀을 잡아 배를 갈라 보도록 했다. 배 속에는 이방의 아버지 시체가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p> <p>“이방, 잘 보게. 내 옥황상제에게 보낸다는 편지는 편지가 아니라 독약이었네, 이래도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는 말을 믿을 건가?”</p> <p>그 후부터 70이 넘은 노인을 한라산에 버리는 풍속이 없어졌고, 또 70 이전에 죽은 시체도 매장하는 법이 생겼다.</p>

관 련 제 재	제주전래 동화 제목	내 용
2. 소중 한 시 간 (실천 의지)	박계곤	<p>조선조 숙종(肅宗) 때, 북제주군(北濟州郡) 애월면(涯月面)에 박계곤(朴繼崑)이라는 사람이 살았었다. 큰 골공부는 아니했지만, 글 재주가 좋고 나라에 충성심과 부모에게 효심이 지극하였다</p> <p>때마침 숙종 임금의 승하였다는 소문이 왔다. 박계곤은 비통해 한 나머지, 자진하여 30명의 역군을 거느려 능(陵)을 쌓으려 장안으로 올라갔다. 각 도에서 모여든 역군들과 능을 쌓는데, 각각 노래를 지어 불러 자랑으로 삼았다 박계곤은 ‘대만민회천안(代萬民回天顏)’이라고 후귀(後句)를 부르니, 역군들은 물론, 거기 있는 관원들이 모두 놀랐다 저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인가? 제주에서 온 역군임을 알자 칭찬의 소리가 더욱 자자하였다.</p> <p>능 쌓기를 마치고 박계곤은 고향으로 향하였다. 섬 하나 보이진 않은 바다에 이르자 돌연히 강풍이 몰아닥쳤다 배는 깨어지고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다. 박계곤은 모든 것을 채념하고 나무 조각을 하나 뜯어 내었다. ‘하느님이 나를 살릴 터이면 보살피소서’라고 손가락을 끊어 나무 조각에 혈서를 써 바다에 띄우고 몸을 바다에 던졌다.</p> <p>이 혈서 한 나무 조각이 북제주군 한림면(翰林面) 용포리(瓮浦里)의 바닷가에 떠 올라왔다. 마침 박계곤의 처가 바닷가에 물을 길러 가서 허벅(물 길는 항아리)에 물을 길는데, 이 나무 조각이 허벅 손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것을 보고 남편의 죽음을 알고 친족에게 알리었다.</p> <p>이 사실이 궁중에까지 전하여져서 ‘충효 박씨 정문(忠孝朴氏旌門)’이 내려졌다 그 정문은 애월면 신엄리(神嚴里)에 있다</p>

관 련 제 재	제주전래 동화 제목	내 용
3 우리 학교 (예 절의 생활화 - 말조 심하기)	며느리의 말대꾸	<p>옛날 어떤 며느리가 늦잠을 자 가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애야, 사타구니에 해 박히고 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그 말을 들어 놓아 두었다가 , 하루는 비가 와 가니, 시어머니에게</p> <p>“마당을 어디로 말아 들입니까?” 하니, 시어머니가 “너희 집에는 비가 와 가면 마당을 말아들어느냐?” 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p> <p>“어머니네 집에는 늦잠 자면 사타구니에 해 박힙니까?”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p> <p>“한 말이나 쟈라 ” 이러니까</p> <p>“물보리 닷 말은 쟈겠습니다 ”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을 조심하지 못해서 졌다고 한다</p>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 련 제 재	제주전래 동화 제목	내 용
4. 다른 사 람 의 처 지 (경애)	홍노 오서자	<p>조선조 헌종(憲宗) 때에, 남제주군 성산면 고성리(古城里)에 홍효자(洪孝子)가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남다른 부모 봉양에 칭송이 자자했다.</p> <p>아버지가 병환으로 늙게 되자 침식을 잊고 구병에 힘썼다 아버지 구병을 하는 데에, 갓옷을 입은 채 마루방에서 몇 달이고 지내자니 이가 몹시 생겼다. 목욕을 아니함은 물론, 머리도 빗지 않고 오직 아버지 병환만을 걱정하는 것이니 이가 일 것은 당연하다. 어찌나 이가 많이 일었는지 갓옷의 털 틈새마다 이가 박히었다 어느날, 홍효자는 이를 잡기도 했다. 이를 잡는다 해도 실은 죽이는 게 아니라, 털발의 틈새마다 허영게 기어다니는 이를 하나하나 주워서는 땅바닥에 조심조심 놓아주는 것이었다. 이라고 한들 살생을 해서는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때 말총 장수가 말총을 사러 들어왔다 말총장수는 제주도의 말총을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사 모아 가지고 육지로 내어다 파는 행상꾼이다 말총 장수는 홍효자 집 마당에 들어서서 홍효자가 이 잡는 방법이 하도 결자이어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말총 장수는 이런 우둔한 인간은 한 번 끌려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하, 여보 그 많은 이들을 어찌 하나하나 잡아 뱉니까?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p> <p>말총 장수는 갓옷을 시루에 넣어서 찌면 이가 한꺼번에 없어질 것이 아니냐고 가르쳐 주었다.</p> <p>조금 머리는 잘 돌아가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갓옷은 시루에 넣어 찌면 윤기가 다 빠져서 구워 놓은 오징어처럼 다시 입지 못하는 것을 몰랐다. 홍효자는 말총 장수가 시킨대로하였다. 그렇게 하니 갓옷은 영영 입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이것을 보자, 홍효자는 크게 탄식을 했다.</p> <p>이렇게 매일 탄식을 하는데, 말총 장수는 말총을 사 거두어서 육지로 나가려고 배를 놓았다 풍파가 세어서 떠날 수가 없었다 조금 바람이 잔진해진 것 같아서, 배를 놓으면 곧 풍파가 일어 돌아오곤 하는 것이었다. 석달 열흘을 기다려도 바람은 자지 않았다 말총 장수는 하도 답답해서 점장에게 가니 점장은 ‘천하 대효(天下大孝)의 마음을 거슬러 놓은 죄 때문이라’고 했다. 그제야 말총장수는 홍효자를 조롱한 죄를 깨치고 홍효자를 찾아가사죄를 했다 그리하여 홍효자의 마음을 풀어 놓은 후에야 순풍(順風)이 일어 배를 띄워 갈 수가 있었다 한다.</p> <p>그 후 효자비가 내렸는데, 지금 성산면 고성리(古城里)에서 수산리(水山里)로 가는 길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그 지명(地名)을 효자문거리라 한다.</p>

관 련 제 재	제주전래동 화 제목	내 용
5, 용기 있는 생 활 (여러 사람을 위한 일)	영천 이목사 (永川 李牧使)	<p>영천 이 목사는 깡패였다 신하들이 그를 제주 목사 로 보내었다. 제주목사는 도입하기만 하면 다음날 죽 은 일이 있었다. 도입 첫날 밤 혼자 누워있으려니, 우 레 소리를 내면서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은 자기가 북 벌을 지휘했던 장군이나 잘못이 있어 제주로 유배왔 고, 유배지에서 죽은 뒤 봉제를 받다가 요즘 봉제를 하지 않으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이전 도입자들은 무서워서 죽었던 것이다. 다음날 그가 남 긴 재산을 잘 정리하여 봉제를 맡은 사람으로 하여 봉 제하도록 하였다. 어느날 아전들을 소집하니 이방이 빠졌다. 이 방의 딸은 용수에 있는 당에 제물로 받치 기 때문이었다. 곧 용수로 가 보니, 무당들이 굿을 하 며 막 희생을 받치려하고 있었다 희생은 뱀이 잡아 먹는 것이라고 했다 영천이 목사는 뱀이 나오자 칼로 쳐서 시체를 불살라버렸다 또 백성을 협잡하는 당(堂) 과 절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오백이나 되는 당과 절 이 불타 없어지자, 거지서 얻어먹던 귀신들이 옥황상 제에게 하소연하였다. 이 목사를 죽이기로 결정되자, 전날 도움을 받던 장군 귀신이 곧 사실 알려주었다. 바다에서 빠져나갈 때, 혹 뒤를 돌아다보면 죽을 것이 므로 병풍으로 뒤를 가리고 떠나도록 하였다 이목사 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차린 귀신들이 뒤쫓아가며 배 를 뒤집으려고 큰 파도를 일으켰다. 제주바다의 수평 선을 넘어가니, 귀신들이 힘이 부쳤던지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p>

관 련 제 재	세주전래 동화 제목	내 용
6. 바른 회 의 태도 (타인 존중)	강별장	<p>안덕면(安德面) 감산(柑山里) 강씨(姜氏) 조상에 '강별장(姜別將)'이라는 이가 있었다. 집안이 부자여서 유족하게 살았다. 영결스럽고 성격이 각박한 데에다 욕심이 세었다. 어느 날 어떤 중이 강별장네 집에 시주를 받으러 왔다. 욕심이 센 강별장은 중에게 쌀을 주는 것이 아까워서 종놈에게 시켜 두엄을 한 삼 떠 주었다. 중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받아 가 버렸다.</p> <p>얼마 후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강별장네 선조의 묘가 있는 병산(竝山 : 安德面 上川里의 산)의 봉우리를 깎아 내리면 강별장네 집안은 훨씬 발복할 것이라는 말이다. 강별장은 그 말의 출처를 캐어 보았다. 중이 발설하였음을 알아 내었다. 욕심이 많은 강별장은 곧 그 중을 찾아내어 사실을 물어보았다. 중의 이야기는 그럴싸했다. 강별장네 선묘의 지형은 개 형국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 묘가 있는 병산(竝山) 때문이라는 것이다.</p> <p>병산은 두 산이 나란히 있는 산인데, 그 봉우리가 하나는 높고 하나는 얇으니 그게 좋지 못하다 했다. 그러니 높은 산봉우리를 다른 얇은 산봉우리와 같게 깎아 내린다면 집안이 크게 발복할 것인데, 아깝게 되었다는 것이다. 강별장은 내 기세를 가지고 그것쯤은 깎아 내리는 것이야 문젠이겠느냐고 했다. 집안이 더욱 흥한다면야 그 산을 전부라도 파 넘기겠다고 기세를 올렸다. 그런데, 강별장은 이 중이 시주를 받으러 왔다가 박대를 받고 그 분풀이로서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것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강별장은 이른 날부터 병산의 높은 봉우리를 깎아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산봉우리를 깎아 가니, 산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니 피는 빗물과 어울려 벌겍게 흘러내렸다 한다. 그래서 병산은 인력으로 깎은 듯이 산봉우리가 반쯤 끊어져 있고, 거기의 흙은 지금도 붉은 채로 남아 있다.</p> <p>강별장이 연일 산을 깎아 내린다는 보고가 조정에 올라갔다. 중앙에서는 역적이 날 일임에 틀림없다 하고, 관원을 보내어 강별장을 잡아 오도록 했다.</p> <p>관원이 와서 보니, 강별장은 등근 기둥의 기와집을 짓고 네 귀에 풍경을 달고 살고 있었다. 등근 기둥은 궁정에 쓰는 기둥이니, 역적을 도모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하고 강별장을 잡아 올렸다.</p> <p>연일 고문이 계속되었다. 관원들은 다시 강별장의 아들을 잡아다가 심문기로 하였다.</p> <p>아버지와 아들에게 번갈아 가며 국문(鞫問)을 계속했다. 누구도 굴복을 아니하니 피를 내었다. 아들은 굴복하고 강별장은 끝내내 굴복하지 않았다.</p> <p>할 수 없이, 관내에서는 아들은 거기서 죽이고 강별장은 무인도(無人島)로 실어다 던져 버렸다.</p> <p>강별장은 홀로 무인도에서 흙을 주워 먹다가 끝내 굶어 죽었다 한다.</p>